

문화도시

포지셔닝 전략 수립 및
실행 프로그램 개발

문화도시

포지셔닝 전략 수립 및 실행 프로그램 개발

제출문

성남문화재단 귀하

본 보고서를 「문화도시 포지셔닝 전략수립 및 실행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년 1월
(주) 브랜드스토리

>> 연구진

책임 연구원	전수환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경영과 교수
연구원	강주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도시행정 석사 (재)
	이혜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경영과 전문사 (재)
	오세론 (주)브랜드스토리
보조 연구원	한지혜 (주)브랜드스토리

목차

I 서론	09
1. 연구배경	10
2. 연구목적	11
II 성남 문화정책의 진화과정	15
1. 문화정책 1단계 : 시민주체 형성의 기초 다지기	16
1) 시민주체의 문화예술 창조도시 비전과 5대 문화정책 사업	16
2) 5대 사업 연계발전 방안 연구	19
3) 1단계 문화정책의 추진성과	21
2. 문화정책 2단계 : 문화공동체 운영체제 만들기	22
1) 문화공동체적 예술 패러다임의 도입	22
2) 문화공동체적 예술 패러다임 정책추진사례	24
3) 5대 문화정책 사업의 성숙과정	28
4) 문화정책 사업의 재통합화 추진 과정	30
5) 문화도시 포지셔닝의 방향	32
5-1) 성남의 문화브랜드	32
5-2) 문화도시 포지셔닝의 전략 체계	33
5-3) 문화비전 포지셔닝 전략	33
5-4) 문화프로젝트 포지셔닝 전략	34
5-5) 문화지원체계 포지셔닝 전략	35
6) 2단계 문화정책의 성과	37
III 문화비전 포지셔닝	39
1. 문화비전 포지셔닝 방향	40
1) 문화비전 연구개발 사업	42
2) 문화비전 공유 사업	43
2. 추진사업	45
1) 문화비전 연구개발 사업	45
1-1) 추진방향	45
(1) C&D 연구모델 적용	
(2) 연구결과물 브랜드화	
(3) 연구개발체계와 비전공유체계의 연계	
1-2) 실행 프로그램	46
(1) 개방형 혁신 국내외 연구 체계 구축 프로그램	
(2) 정기적 연구모임 정례화 프로그램	
(3) 연구자료 발간지원 프로그램	
(4) 연구센터 설립지원 프로그램	
2) 문화비전 공유 사업	47
2-1) 추진방향	48
(1) 시민주도형 공유체계	

(2) 교육형 공유체계	
(3) 네트워크형 공유체계	
2-2) 실행 프로그램	48
(1) 문화비전 브랜드 구축 프로그램	
(2) 성남 차원 비전 공유체계 구축 프로그램	
(3) 국가 차원 비전 공유체계 구축 프로그램	
(4) 세계 차원 비전 공유체계 구축 프로그램	

IV 문화프로젝트 포지셔닝 53

1. 문화프로젝트 포지셔닝 방향	54
2. 추진사업	55
1) 사랑방 문화클럽 사업	55
1-1) 추진방향	55
(1) 시민주도 상향식 지원방식	
(2) 다양한 지원체계를 통한 간접 지원 위주	
(3) '우리 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와의 연계	
1-2) 실행프로그램	56
(1) (사랑방) 단계 : 사랑방 문화클럽 육성 프로그램	
(2) (사랑마루) 단계 :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프로그램	
(3) (사랑마당) 단계 : 사랑방 문화클럽 축제 및 프로그램	
2)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58
2-1) 추진방향	58
(1) '동네 만들기'를 넘어선 '성남 만들기'	
(2) 지속가능한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다각적 지원	
(3) 축제를 통한 문화예술 창조도시 실현	
2-2) 실행프로그램	58
(1) (사랑방) 단계 :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프로그램	
(2) (사랑마루) 단계 :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네트워크 프로그램	
(3) (사랑마당) 단계 : 성남 문화공동체 만들기 프로그램	

V 문화지원체계 포지셔닝 63

1. 문화지원체계 포지셔닝 방향	64
1) 육성체계	64
2) 법·제도적 지원체계	66
3) 공간 지원체계	68
4) 지원조직체계	69
2. 추진사업	70
1) 육성체계 : 생활예술학교 사업	70
1-1) 추진방향	70
(1) 생활예술가, 생활예술기획자, 생활예술교육자 군으로 교육대상자 구분	
(2) 실행과 현장 중심의 교육운영	
(3) 네트워크형 운영체제 조직	
1-2) 실행프로그램	71

(1) 교육대상자 역량 분석 및 커리큘럼 개발 연구 프로그램	
(2) 다양한 교육 운영방식의 시범 운영 프로그램	
(3) 문화프로젝트 내 학습 조직 운영 및 시범 커리큘럼 운영 프로그램	
(4) 생활예술학교 설립 및 운영 프로그램	
2) 법·제도적 지원체계 : 생활예술지원법 및 문화통화 활성화 사업	73
2-1) 추진방향	74
(1) 조례제정을 통한 문화정책 발전기반 마련	
(2) 시민이 참여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3) 문화통화사업의 지원체계화	
2-2) 실행프로그램	74
(1) '생활예술지원법' 조례제정 시안 및 준비 사업 프로그램	
(2) 문화통화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업 프로그램	
(3) 문화통화 활성화 전략 연구사업 프로그램	
3) 공간 지원체계 : 생활예술센터 사업	76
3-1) 오프라인 공간 추진방향	76
(1) 일상생활공간의 문화공간화	
(2) 접근성을 기반으로 하는 공간인프라 확충	
(3) 프로젝트, 문화통화, 지원조직 등과의 연계	
3-2) 오프라인 공간 실행프로그램	77
(1) 문화 공간 창출 프로그램	
(2) 생활예술센터 운영연구 프로그램	
(3) 생활예술센터 설립 프로그램	
3-3) 온라인 공간 추진방향	78
(1) 온라인-모바일로 확대되는 디지털 지원 공간 2.0	
(2) 비전-프로젝트-지원체계를 통합 지원하는 온라인 공간	
(3) 성남의 IT기업 인프라 활용	
3-4) 온라인 공간 실행프로그램	79
(1) 디지털 지원공간 2.0 운영협의체 구성 프로그램	
(2) 온라인 지원공간 구축 프로그램	
(3) 소셜 미디어 채널 구축 프로그램	
(4) 모바일 지원공간 구축 프로그램	
4) 지원조직 체계 : 문화사랑 거버넌스 사업	82
4-1) 추진방향	83
(1) 문화재단내 지원조직 강화	
(2) 네트워크 구축 중점	
(3)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를 통한 성남 문화생태계 조성	
4-2) 실행프로그램	83
(1)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조직 개편 및 전문화 프로그램	
(2) 네트워크 지원을 통한 거버넌스 시범구축 프로그램	
(3) '문화사랑 거버넌스' 프로그램	

VI 결론	87
-------	----

참고문헌	94
------	----

〈표 2-1〉	예술의 패러다임 변화	22
〈표 2-2〉	시민주체의 문화예술 활동과 지원 사례 비교(성남문화재단 기준)	25
〈표 2-3〉	문화도시 포지셔닝의 전략 체계	33
〈표 3-1〉	문화비전 공유사업	47
〈표 3-2〉	국내 발신기지화 사업	50
〈표 3-3〉	비전 홍보 · 마케팅 사업	51
〈표 4-1〉	사랑방문화클럽 실행프로그램	56
〈표 4-2〉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실행프로그램	58
〈표 5-1〉	성남시 문화체육복지국 조례 및 시행규칙 현황 (2009년 기준)	66
〈그림 1-1〉	2009년 〈세계문화클럽포럼 World Culture Clubs Forum〉	10
〈그림 2-1〉	성남 문화정책 3단계 계획	16
〈그림 2-2〉	1단계의 5대 문화정책 사업 개념도	17
〈그림 2-3〉	성남 문화정책의 주요 연구보고서	18
〈그림 2-4〉	성남문화재단 문화정책 통합사업 모델	20
〈그림 2-5〉	성남 문화정책의 1단계 3개년의 추진성과	21
〈그림 2-6〉	2단계 5개년 발전계획 연구	22
〈그림 2-7〉	2단계의 5대 문화정책 사업 개념도	28
〈그림 2-8〉	성남의 5대 문화정책 사업의 재통합	31
〈그림 2-9〉	성남의 통합 문화브랜드『문화사랑시 성남』	32
〈그림 2-10〉	문화비전 포지셔닝 전략	34
〈그림 2-11〉	문화프로젝트 포지셔닝 전략	34
〈그림 2-12〉	문화지원체계 포지셔닝 전략	35
〈그림 2-13〉	성남 문화정책의 2단계 5개년의 추진목표와 사업	37
〈그림 3-1〉	성남의 통합 문화브랜드『문화사랑시 성남』	40
〈그림 3-2〉	성남시 문화비전 창출과정	40
〈그림 3-3〉	문화비전 포지셔닝	41
〈그림 3-4〉	문화비전 연구 개발사업	42
〈그림 3-5〉	문화비전 공유사업 실행프로그램	43
〈그림 3-6〉	문화비전 연구개발 사업 추진방향 및 실행프로그램	45
〈그림 3-7〉	문화비전 공유사업 실행프로그램	48
〈그림 4-1〉	문화프로젝트 포지셔닝 방향성	54
〈그림 4-2〉	문화프로젝트 추진사업	55
〈그림 5-1〉	문화지원체계 포지셔닝	64
〈그림 5-2〉	생활예술가와 생활예술매개자의 성장과정	65
〈그림 5-3〉	지원체계 추진사업	70
〈그림 5-4〉	공간에 따른 교육운영방식	72
〈그림 5-5〉	법 · 제도적 지원체계 : 생활예술지원법 및 문화통화 활성화 사업	73
〈그림 5-6〉	오프라인 공간 추진방향	76
〈그림 5-7〉	온라인 공간 추진방향	78
〈그림 5-8〉	문화사랑 거버넌스 사업	82
〈그림 6-1〉	비전-프로젝트 실행프로그램 로드맵	89
〈그림 6-2〉	육성체계 실행프로그램 로드맵	91

I 서론

Introduction

-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1. 연구배경

2009년 9월 15일, 성남에 영국, 미국, 일본, 독일, 불가리아의 아마추어 예술 활동가들이 모였다. 성남문화재단이 개최한 <세계문화클럽포럼 World Culture Clubs Forum>에 참석한 이들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를 공유했다. 1980년대부터의 아마추어 예술 활동을 주도한 국제적 활동가들은 경험과 지식 및 향후 비전을 나누었고 국제적 관련 협력망의 필요성을 공유하였다. 이 자리에서 성남문화재단은 2006년부터 주창한 『시민주체의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이라는 비전과 지난 3년간의 사업성과 및 향후 발전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생활예술에 관련된 국제 네트워크에 본격적으로 접속하게 되었다.



그림 1-1 2009년 <세계문화클럽포럼 World Culture Clubs Forum>

1) 성남문화재단. 2006.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만들기 기본계획 연구. 성남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은 2006년에 『시민주체의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이라는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문화정책 사업, 사업별 총 3단계 15개년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했다¹⁾. 2008년까지 3년간 1단계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 2009년에는 2단계에 접어들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구현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재단인 성남문화재단이 15년에 이르는 중장기 도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일관된 정책으로 성공적인 사업성과를 축적해온 것은 우리나라 지역문화재단으로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성남문화재단이 제시한 ‘시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간다’는 비전은 이제 성남을 넘어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중요한 흐름으로 등장하고 있다. 2009년 10월 16일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광역시가 공동주최한 <2009 문화의 달> 기념 학술대회의 주제는 “시민이 창조하는 문화의 세기: 문화예술발전과 국가경쟁력”이었다. 이 학술대회에서 정부 문화정책의 흐름이 서울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전문예술중심에서 시민생활예술중심으로 변화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²⁾. 이 학술대회를 비롯한 최근 문화정책생태계에서 사랑방 문화클럽 지원정책은 아마추어 예술동아리 활성화 지원정책의 대표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³⁾. 국내 관련 활동가 및 전문가들은 성남문화재단이 시민주체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노하우(know-how)와 이를 통한 도시발전 비전을 전수·확산시키는 ‘발신기지’가 되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⁴⁾.

이제 성남문화재단은 선도적으로 ‘시민이 만들어가는 문화예술 창조도시’ 비전과 추진사례를 제시한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체계적인 정책 운영체제를 갖추고 성공적인 사업성과를 축적하여 널리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생활예술 관련 문화정책과 이로 인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가치를 성남시민들에게 설명하고, 대외적으로도 문화정책 비전과 수행성과를 공유하는 고도의 문화정책 개발 및 수행 역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금까지 성남문화재단은 문화정책 사업을 통해 시민주체의 문화예술 창조도시의 형성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제는 그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운영체제로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가야 한다. 지역 중심의 예술정책 시대에 성남이 관련 문화정책의 발산지로서 한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떻게 문화정책적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즉 ‘문화도시 포지셔닝 전략수립 및 실행 프로그램 개발’이란 도시의 문화브랜드를 설정하고 널리 알려져 시민의 마음속에 자기가 속한 도시의 바람직한 위치를 형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략 수립 및 실행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단순한 이미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도시 속에서 지속적이고 자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⁵⁾.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성남 문화정책 2단계의 수행 역량강화를 위해 문화도시 포지셔닝 전략과 실행 프로그램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양효석, 2009. ‘생활 속의 예술’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 현황과 과제. 문화의달 기념 학술회의-시민이 창조하는 문화의 세기 자료집, 인천문화재단.

3) 박은실, 2009. 창의적 공동체의 특성에서 살펴 본 아마추어 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방안. 문화의달 기념 학술회의-시민이 창조하는 문화의 세기 자료집, 인천문화재단. ; 전수환, 2008. 실행공동체를 통한 자발적 예술의 육성-성남문화재단 사례. 예술경영연구, 제13집, 예술경영학회 ; 전수환, 박승현, 2008. 시민주도의 창조도시 만들기-수도권 중소도시로서의 성남사례, 한국문화경제학회 2008 추계 학술대회 “문화예술과 도시발전” 자료집, 한국문화경제학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문화클럽조성 및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공동체 활동 관련 사례분석 및 지원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4) 2009년 12월 18일 본 연구과정에서 추진한 <중간보고 및 포커스 인터뷰>의 기록을 참고함. 당시 인터뷰 대상은 성남 문화정책 사업에 참여하는 활동가들과 타 지역의 시민 문화예술 활동 관련자들이 참석함.

5) 성남문화재단, 2009. 성남문화재단 5대정책 2단계 5개년 발전계획 연구 : 2단계 5개년 창조시민·창조공간·창조도시, 성남문화재단.

성남 문화정책 사업의 진화과정 검토

-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된 성남 문화정책 1단계의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정책적 의미를 도출함. 1단계의 문화정책 추진성과를 정리함
- 2009년에 시작된 성남 문화정책 2단계의 주요 변화내용을 정리하고 정책적 의미를 도출함. 5대 문화정책 사업을 비전, 프로젝트, 지원체계의 3가지 차원으로 포지셔닝하고, 전략에 따른 2단계의 문화정책 목표와 추진사업을 제안함

시민주체의 문화예술 창조도시 포지셔닝 전략 및 실행 프로그램 제안

- 문화비전 포지셔닝에서는 『시민주체의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이라는 비전의 3가지 의미를 구체화하고, 문화비전 연구개발 및 공유체계 운영을 위한 실행 프로그램을 제안함
- 문화프로젝트 포지셔닝에서는 성남을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문화정책 사업인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사업과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핵심 프로젝트로 설정하고 각 프로젝트의 3단계 구성요소별 실행 프로그램을 제안함
- 문화지원체계 포지셔닝에서는 프로젝트 수행을 돕는 4가지 지원체계를 설정하고 각 지원체계의 실행 프로그램을 제안함

II

성남 문화정책의 진화과정

Evolution of Seongnam Cultural Policy

-
1. 문화정책 1단계 : 시민주체 형성의 기초 다지기
 2. 문화정책 2단계 : 문화공동체 운영체제 만들기

시민주체의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

3단계 2014~2020	세계 속의 '예술시민의 도시' 구현하기
2단계 2009~2013	문화공동체 운영체제 확립하기
1단계 2006~2008	시민주체 형성의 기초 다지기

그림 2-1 성남 문화정책 3단계 계획⁶⁾

성남문화재단은 2006년에 『시민주체의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이라는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문화정책 사업, 사업 추진을 위한 3단계 15개년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2009년에는 1단계 사업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정책 2단계에 진입하였다.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성남 문화정책의 변화과정을 검토하여 단계별 진화 내용과 의미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4년간의 사업추진 방향과 실행 프로그램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문화정책 1단계 : 시민주체 형성의 기초 다지기

6) 성남문화재단. 2009. 성남문화재단 2단계 5개년 "창조 시민 · 창조공간 · 창조도시". 성남문화재단.

7)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제1장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성남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한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체성 확립,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 문화창달 활동 등을 통하여 시민의 문화복지 구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성남문화재단은 문화정책을 통해서 성남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⁷⁾. 문화정책의 비전인 『시민주체의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은 성남의 도시 정체성 연구와 시민의 아마추어 예술활동 연구인 사랑방문화클럽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남의 문화정책을 시민주체성을 형성하는 기반을 다지는 것으로 설정한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된 문화정책 1단계에서는 제시된 비전과 사업이 시민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추진계획과 사업운영체제를 다듬었다. 처음 비전 수립 당시부터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원동력을 '시민의 참여'라고 정의하고 '시민주체성'을 문화정책 비전과 사업의 중심에 위치시켰다.

1단계 3개년간 성남문화재단이 도시정책에서 시민주체 형성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다.

1) 시민주체의 문화예술 창조도시 비전과 5대 문화정책 사업

2006년 성남문화재단은 문화정책의 비전과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워크숍과 토론회, 연구조사 등을 실시하고⁸⁾,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민주체의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이라는 비전과 5대 문화정책 사업의 3단계 발전계획을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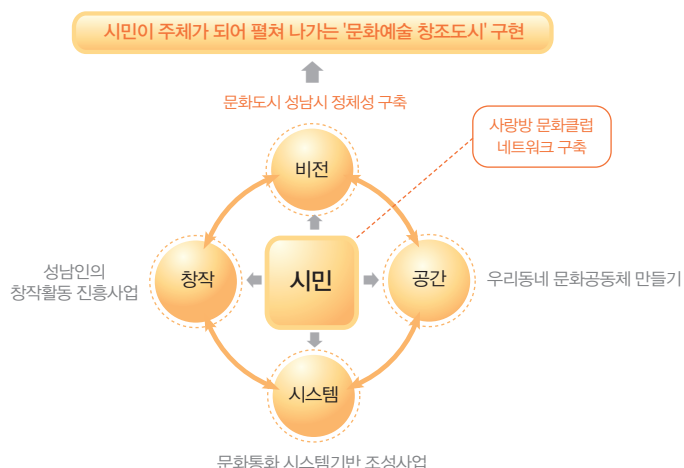
8) 성남문화재단. 2006.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 실태 및 욕구조사. 성남문화재단. ; 성남문화재단. 2006. 『문화도시, 성남』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문화도시 성남 창조를 위한 시민토론회 자료집. 성남문화재단. ; 성남문화재단. 2006. 예술, 태평동에서 노닐다-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워크숍 자료집. 성남문화재단. ; 성남문화재단. 2006. 성남문화통화 도입을 위한 일본 지역통화 연구 자료집. 성남문화재단. ; 성남문화재단. 2006. 사랑방문화클럽 발전방안 연구. 성남문화재단.

『시민주체의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수립과정에서 먼저 문화정책의 화두로 등장했던 문화도시론과 창조도시론을 비교검토하여 양 이론의 장점과 성남의 맥락을 결합시켜 '문화예술 창조도시'라는 문화정책 비전을 도출하고 5대 정책사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성남의 문화예술 창조도시로서의 비전을 다른 도시의 문화정책과 차별화시키는 것은 '시민주체성'을 문화정책의 핵심 키워드로서 이해하고 실제적인 정책 수립과 구현을 통해 시민주체성을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민주체의 문화예술 활동'을 전면에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성남시민들의 활발한 자발적 문화예술 활동 현황조사⁹⁾로 부터 확인된 시민들의 문화예술 참여 역량에 대한 신뢰 때문이며, 시민이 능동적으로 문화예술을 창조하는 도시의 정체성은 성남시가 이주민들로 급격히 구성되는 과정에서 시민 개개인의 남다른 개척정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도시라는 특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남이 비전을 수립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시민주체성을 확보하고 촉진시키는 것이었다. 문화정책과 도시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직접 정책 사업에 참여하여 가치를 내재화하고 확산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추진사업에서도 시민참여가 강조되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5대 문화정책 사업은 ① 문화도시 성남시 정체성 구축 사업(비전), ②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 사업(시민), ③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공간), ④ 성남인의 창작활동 진흥 사업(창작) ⑤ 문화통화 시스템 기반 조성 사업(시스템)으로 구성되었다. 5대 문화정책 사업 간의 개념도를 그리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예술동아리를 지원하는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 사업(시민)이 중심에 자리한다.



9) 성남문화재단. 2006.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 실태 및 욕구조사. 성남문화재단.

10) 성남문화재단. 2006.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만들기 기본계획 연구.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만들기 기본계획 연구 (2006)

성남문화재단 5대정책 연계발전 방안 연구
"창조시민 창조공간 창조도시" (2008)

▮▮▮ 그림 2-3 ▮▮▮ 성남 문화정책의 주요 연구보고서

11) 성남문화재단, 2006.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 실태 및 욕구조사, 성남문화재단.

5대 정책 사업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세로축의 위쪽에는 문화도시 성남시 정체성 구축 사업이 있다. 이 사업에서 문화정책의 비전과 5대 문화정책 사업 발전계획 등의 문화정책 관련 큰 그림이 그려진다. 구체적으로는 성남의 문화정책 관련 현황조사나 주요 정책연구, 포럼이나 워크숍 등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특히, 주요 정책연구 사업은 각 분야의 연구자들로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반영한 새로운 연구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렇게 도출된 새로운 지식을 정책수립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되, 성남문화재단이 중심을 잡고 일관된 정책 수립을 할 수 있었던 개방형 연구개발 체계 운영에서 성남문화재단의 문화도시 정체성 구축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개념도의 중심에 위치한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성남 시민의 자발적 문화예술 활동을 대표하는 사업으로서 5대 문화정책 사업 중 대내외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시민들의 아마추어 생활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아마추어 문화예술 클럽 조사를 실시한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성과로서 의미가 크다¹¹⁾.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사업명이다.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클럽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서 성남문화재단이 직접 개입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화클럽 간의 연결망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시민들의 주체적인 운영역량에 기반하여 지원사업을 운영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시민자치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향하는 성남 문화정책의 추진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세로축의 아래쪽에는 문화통화 시스템기반 조성 사업이 위치한다. 이 사업에서는 시민들이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성남 안에서 '넘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성남만의 문화통화로 교환·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한다. 실제로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사업이나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연계되어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사용이나 교육 프로그램 교류, 공연 및 전시교류 등을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성남만의 지역 통화제도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문화예술 생산과 소비, 유통 과정에서 자생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통화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에서도 짧지 않은 역사와 성공사례를 갖고 있지만 성남에서처럼 시민의 자발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지셔닝된 경우는 드물다. 이와 같은 문화통화시스템 기반 조성을 추진하게 된 것을 시민의 자발적인 예술활동에 적합한 새로운 방식의 지원시스템을 가지려는 성남문화재단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도시 공간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이 진행되는 가로축의 사업에는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성남시민의 창작활동 진흥 사업이 있다.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동네의 유형을 골목길, 공단, 아파트, 시장, 상가 등 5개로 구분하고 전국의 문화예술 작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동네를 가꿀 기획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지원하였다. 사업 초기에는 활동 지역에 관계없이 마을만들기에 전문성이 있는 전문 작가 및 단체를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점차로 문화공동체 형성에 의미를 두고 성남에 거주하는 예술가들과 시민예술가인 사랑방문

화클럽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즉 일회성인 이벤트성 사업이 아니라 일본의 마을만들기와 같은 지속가능한 방식이 되기 위하여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있어서도 시민주체성 육성이 부각되었다.

성남인의 창작활동 진흥 사업은 성남인 누구나 생활 속에서 쉽게 창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랑방문화클럽 육성도 성남시민의 창작활동 진흥 사업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이 사업은 주로 성남에 거주하는 전문예술가들의 창작 활동 지원에 관심을 두었고, 성남인 누구나 생활예술 창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만들기 사업과 연계되어 진행되었다. 성남에서의 전문예술가 지원 정책은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결합하여 진행됨으로써 일반적인 전문예술가의 창작지원이 아닌 시민의 생활예술 창작 활동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예술가 육성 정책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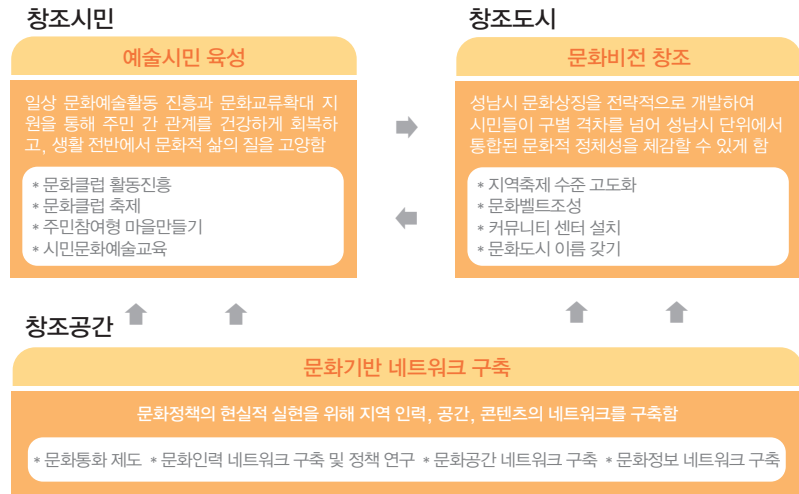
이상의 5대 문화정책 사업은 시민주체의 문화예술창조도시로 성남이 자리매김하기 위한 도시의 문화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시민주체성'이라는 연계성 아래서 상호 결합되어 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생활예술활동인 사랑방 문화클럽 활동을 중심에 두고 그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통화 시스템 구축과 시민주체성을 기반으로 문화예술을 통해 우리동네의 문화공동체성을 키워나가는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전문예술가들의 역할을 이웃의 시민주체성을 육성하는 역할로 파악한 성남인의 창작활동 진흥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시민주체성을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실천하는 사업으로서 운영하여 '시민주체의 문화예술 창조도시' 기반을 형성한 것이 1단계 사업추진 의의라 할 것이다.

2) 5대 사업 연계발전 방안 연구

성남의 문화정책 사업은 2006년의 계획마련과 2007년 실제 구현과정을 통해서 5대 정책사업이 상호 연관성을 갖도록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되었다. 그래서 5대 정책사업을 예술시민 육성(창조시민), 문화비전 창조(창조도시), 문화기반 네트워크 구축(창조공간)의 세 가지 영역으로 재구성하는 시도가 있었다¹²⁾.

예술시민 육성(창조시민) 영역에서는 시민의 자발적 문화활동을 촉진하고 시민이 성남의 문화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계획하였다. 해당영역의 추진과 제로는 ① 문화클럽 활동 진흥(사업 지속성을 위한 교류 확대, 도심간 격차 해소를 위한 참여자 발굴, 다양성 및 수월성 확보를 위한 분과구성과 전문가 확보, 접근장벽 제거를 위한 홍보 강화), ② 문화클럽 축제 활성화(기존 지역축제와의 차별화, 시상제도를 통한 질적 향상), ③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복합적 공간으로서 동네특성 반영, 참여자의 다양성 확보, 정보공유와 소통을 위한 매뉴얼 제작·보급, 공간 다양화, 문화클럽 네트워크 연계)와 ④ 시민문화예술교육(문화클럽 기획력 향상을 위한 공개강화 도입, 아트센터 기반의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차별화,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한 미래세대와 지역별 맞춤 교육 실행)이 제시되었다.

12) 성남문화재단, 2008. 성남문화재단 5대정책 연계발전 방안 연구 "창조시민 창조공간 창조도시", 성남문화재단.



13) 성남문화재단, 2008, 성남문화재단 5대정책 연계발전 방안연구 : 창조시민 창조공간 창조도시, 성남문화재단.

13) 그림 2-4 성남문화재단 문화정책 통합사업 모델

문화비전 창조(창조도시) 영역에서는 성남시 시민들이 하나의 통합된 지역으로 느낄 수 있는 문화브랜드를 개발하고 성남시민 전체가 지역의 문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사업들이 추진과제로 제안되었다. ① 지역축제 수준 고도화(기존의 성남 지역축제와 사랑방클럽축제의 차별화 및 네트워크 구축), ② 문화벨트 조성(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사랑방 클럽축제,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등을 활용한 시민 중심의 탄천 문화벨트 조성), ③ 커뮤니티 센터 설치(시민의 자발적 문화활동 공간 제공 및 활동 지원), ④ 문화도시 이름 갖기 등이 그것이다.

문화기반 네트워크 구축(창조공간) 영역에서는 문화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 자원의 연결망을 만드는 것으로 2년간의 사업에서 가장 취약했던 부분으로 지적되었다. 추진과제로는 5대 정책사업 중 ① 문화통화 시스템 구축사업을 포함하여(통화의 원활한 순환을 위한 거래품목 다양화와 배급 방안 모색, 법정통화와의 환금문제 해소, 통화의 3단계 발전 모델 실현), ② 문화인력 네트워크 구축(정책실천 TF 시스템 강화, 시민문화활동 촉진 전문가 자원 확보, 지역문화협의체 구성), ③ 문화공간 네트워크 구축(문화공간 나눔과 공간 야간 개발을 위한 캠페인 전개), ④ 문화정보 네트워크 구축(문화클럽과 재단 홈페이지 통합, 관련 정보 포괄 DB 구축과 정보 제공, 포인트제도 도입, 지역 언론사와의 연계) 등이 제시되었다.

시민주체성을 키우는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5대 사업을 재구성하여 미시적 정책 관점에서 예술시민 육성이 성남 문화정책의 중심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또 다른 차원인 거시적 관점에서는 도시차원의 문화비전

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파악했다. 이렇게 시민 관점과 도시 관점의 문화정책을 병행하려고 시도하게 된 것은 사랑방 문화클럽이라는 생활예술 활동에만 성남의 문화 정책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에 기인한 것이었다. 즉 도시 문화정책의 거시적 차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반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타 문화재단들이 도시 차원의 문화비전들을 기획하고 실천하는데 비해 성남문화재단은 시민육성 부분에만 편향되어 있다는 상대적 비교가 있었다. 따라서 2007년의 연구 작업을 통해 2008년에 발표된 5대사업연계방안은 성남문화재단도 도시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거시적 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러한 시민과 도시를 위한 정책체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화통화시스템에 대한 지원시스템 외에도 인력, 공간, 정보화에 대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지원시스템의 확대는 성남문화재단이 사랑방문화클럽이나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와 같은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지는 못하다는 평가들을 참조했기 때문이다.

시민들을 육성함으로써 도시를 발전시키는 상향적 체계와 도시를 전략적으로 개발하여 시민들을 위한 문화적 환경을 향상시키려는 하향적 체계를 조화시키려고 했다는 점과 지원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5대 사업연계 발전 방안은 구는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5대 정책사업이 시작된 지 불과 일 년 만에 연계시스템을 기획하고 완결적 정책체계를 마련하려고 했다는 것이 시기상조였다는 평가도 받게 되었다. 따라서 5대 사업연계 발전 방향에서 제시되었던 창조시민, 창조도시, 창조공간의 3차원 대안제시는 실제 사업 구현과정에는 반영되지 않고 기존 5대 사업 체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그 계획은 이후 '2단계 5개년 창조시민, 창조도시, 창조공간'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밑거름으로 작용하게 된다.

3) 1단계 문화정책의 추진성과

1단계의 정책추진 성과로는 성남문화재단이 기초자치단위에서는 최초로 '시민이 만드는 문화예술 창조도시'의 비전을 수립하고 정책사업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함께 마련하여 비전의 실현 가능성을 선도적으로 제시한 것을 들 수 있다. 사업별 추진 성과로는 도시의 정체성을 구축한 것과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를 구성한 것,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여 일상 공간을 변화시킨 것, 성남인의 예술창작 활동 지원을 통해서 지역예술가의 창작활동이 시민과 결합하여 지역에 공헌하고 문화공동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한 것, 문화통화 시스템 기반을 조성하여 성남시민의 자생력을 높이는 발판을 마련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1단계의 주요 과제인 시민주체 형성의 기초가 다져졌으며 2009년에 2단계 5개년 사업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시민주체 형성을 위한 기초 다지기

정책추진성과	사업추진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자치단계에서 '시민이 만드는 문화예술 도시'의 가능성을 선도적으로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도시 성남시 정체성 구축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성남인의 예술 창작 활동 진흥 문화통화 시스템 기반 조성

그림 2-5 성남 문화정책의 1단계 3개년의 추진성과

2. 문화정책 2단계: 문화공동체 운영체제 만들기

성남문화재단은 1단계 3개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009년에 2단계 문화정책으로 진입하였다. 새로운 단계 진입에 대비하여 성남문화재단은 『성남문화재단 5대 정책 2단계 5개년 발전계획 연구 : 2단계 5개년 창조시민 창조공간 창조도시』(2009. 이하 '2단계 5개년 발전계획')을 2008년의 연구작업을 통해서 2009년에 발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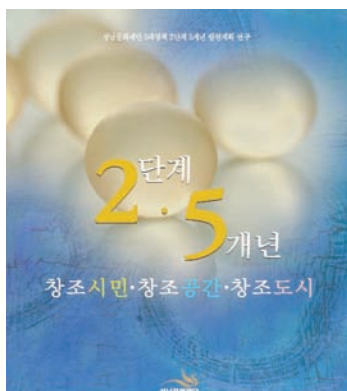


그림 2-6 2단계 5개년 발전계획 연구

여기서는 1단계의 사업성과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평가결과가 반영된 2단계 문화정책의 사업 발전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2단계의 주요과제는 1단계에 형성된 시민주체 기반을 바탕으로 '문화공동체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4년에는 3단계 문화정책으로 나아가 시민 문화예술 창조도시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문화공동체 시스템이라는 것은 새로운 예술 패러다임을 말한다. 그렇다면 성남 문화정책의 시민주체 형성을 위한 기초 다지기 단계에서 새로운 예술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단계로 변화가 일어난 진화과정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성남 문화정책의 비전과 사업 공유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문화도시 포지셔닝'을 제안하여 문화정책 사업의 재구조화 및 문화도시 전략 수립 및 실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과정도 함께 살펴보겠다.

1) 문화공동체적 예술 패러다임의 도입

1단계에서는 정책이 추구하는 비전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공유보다는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시민주체의 문화예술 창조도시라는 비전을 설정한 것이 의미를 갖는다고 인정을 받고 있었지만 그러한 비전 수립 및 비전에 따른 5대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 시대적인 의미가 있는지 확실히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2단계 전략 수립 과정에서는 성남의 문화비전이 갖는 의미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인문학적 역량이 높은 연구진을 새롭게 정책연구모임에 참여시켜 성남 문화정책이 갖는 시대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서 성남이 추구하는 문화비전은 시민이 예술을 통해 문화공동체를 구현하는 문화공동체적 예술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표 2-1 예술의 패러다임 변화¹⁴⁾

	예술지상주의적	도구주의적	문화공동체적
목적	• 예술 그 자체	• 경제발전 • 정치적 홍보	• 공동체 구성원의 자아실현과 상호이해
주체	• 전문창작가 • 비평가 • 애호가	• 경영자 • 정치가 • 기획자	• 시민-예술가, 예술가-시민
예술	• 숭배의 대상	• 기능적 수단	• 창의적인 과정

14) 심보선, 2008. 새로운 예술과 문화공동체, 2008 문화정책 대화모임 자료집, 성남문화재단.

즉, 성남이 추구하는 예술관은 예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예술지상주의적인 예술이나 예술을 경제발전이나 정치적 홍보수단으로 파악하는 도구주적 예술과는 차별화된 공동체 구성원의 자아실현과 상호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공동체적 예술이다. 예술은 개인의 자아정체성을 구성하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자원으로 서 '외부세계와의 소통과 연결을 통해' 새로워진다. 개인의 내면적 성찰과정에서 시작된 예술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실현되면서 필연적으로 문화공동체를 탄생시키는 것이다¹⁵⁾.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한 때 예술은 문화예술적 지식과 능력을 가진 전문창작가, 비평가, 애호가만의 것이었다. 예술작품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언론이나 교육 등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우월성의 상징이 되고 문화예술적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을 구별 지었다. 예술이 사회적 계층을 형성하여 블록(Block)을 만드는 문화자본(Cultural Capital)¹⁶⁾으로서, 소수 엘리트만을 위해 존재하며 예술 그 자체로서 숭배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하면서 차츰 예술은 경영자, 정치가, 기획자 등에 의해서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적 예술로 변화하여 경제발전과 정치적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예술의 생산과 소비를 통해 사람들이 결속(Bonding)되고 연결되고 있다. 예술이 개인의 창의성을 살리고 삶을 혁신하여 자아를 실현하는 것은 물론 공동체 구성원간의 상호이해를 높이는 창의적인 과정으로 인식되면서 사회자본(Social Capital)¹⁷⁾으로 변화하였다. 교육이 대중화되고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문화자본이 민주화되면서 사회의 블록을 형성하던 예술도 연결망(Web)을 형성하는 것이다. 더 이상 예술가와 시민(창작과 감상, 예술과 삶, 예술가와 관객)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두 주체가 다양한 협업을 통해 예술을 창조하며¹⁸⁾, 신뢰와 유대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공동체를 만들어간다. 예술이 지닌 본래의 공동체 지향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1단계에서 성남시의 문화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 수립했던『시민주체의 문화 예술 창조도시, 성남』이라는 비전과 5대 정책사업은 성남시민이 개별적이고 자발적인 예술 활동을 통해 이웃과 연결되고 지역과 도시로 확장되어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15) 심보선, 2008, 새로운 예술과 문화공동체, 2008 문화정책 대화모임 자료집, 성남문화재단.

16) P. Bourdieu, 1984,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성남문화재단, 2009, 성남문화재단 5대 정책 2단계 5개년 발전계획 연구 : 2단계 5개년 창조시민 창조공간 창조도시, 성남문화재단, 재인용.

17) P. Bourdieu, 1984, Out Line of A Theory of Prac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bert , Putnam, 1996,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A Touchstone Book, 성남문화재단, 2009, 성남문화재단 5대 정책 2단계 5개년 발전계획 연구 : 2단계 5개년 창조시민 창조공간 창조도시, 성남문화재단, 재인용.

18) 이런 변화가 두드러지는 예술 분야는 미디어 아트, 음악 등이다.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예술 창작과 유통, 소비 활동의 사례는 2009 문화정책 대화모임 자료집 (성남문화재단, 2009) 중에서 <미디어를 통한 참여하는 문화예술> (박준표, 이혜원)을 참조할 수 있음.

2) 문화공동체적 예술 패러다임 정책추진사례

이러한 문화공동체적 예술패러다임 정책추진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시민주체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시민주도의 문화공동체 활동 사례와 지역문화재단의 시민주체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례를 비교 검토하였다. 시민주도의 문화공동체는 구성원들이 오랜 시간동안 갈등과 문제 해결과정을 거치며 합의된 비전을 공유하고 발전시켜왔으며, 지역문화재단들은 최근 몇 년간 관련 지원사업들을 진행해왔으므로 일정 수준의 정보와 지식이 축적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비교는 성남문화재단의 5대 정책사업을 기준으로 했다. 5대 정책사업은 다시 관련 프로젝트, 지원시스템, 공동체 지향성으로 분류하고 관련 프로젝트에서는 시민주도의 문화예술 클럽 활동과 동네만들기 활동이 있는지, 지원시스템에서는 시민주체양성과 문화통화 시스템이 있는지, 공동체 지향성에서는 시민축제나 지역공헌 활동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시민주도의 문화공동체 활동 사례로는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와 성미산 마을 사례를 살펴보고, 지역문화재단 사례로는 서울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의 사례를 비교검토 한다.

먼저 각 사례의 개요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19) 이현식. 2009. 어떻게 시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문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 인천의 사례를 중심으로. 2009 문화의 달 기념 학술회의 자료집. 인천문화재단. ;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http://www.peopleart.org>

20) 유창복. 2009. 나의 마을살이 10년-이제 마을하자!.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워크숍 자료집.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내부자료 ; 성미산 마을극장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http://cafe.naver.com/sung-misantheater>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¹⁹⁾는 1996년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평화와 참여로 가는 시민문화센터'의 문예위원회에서 시작되었다. 시민이 참여하는 공연과 축제, 아카데미 등의 기획 사업을 진행해오다 2005년 문화단체로서 보다 전문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인천연대로부터 독립하여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가 되었다. 10여명의 상근자와 30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는 일상적으로 시민들이 스스로 문화예술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활동하는 문화수용자 운동인 '문화바람' 활동과 전문창작활동, 문화를 매개로 한 동아리 활동 공간인 '놀이터'와 복합문화공간인 아트홀 '소풍'을 운영하고 있다.

성미산 마을²⁰⁾은 성미산 자락에 살고 있는 성산, 서교, 망원, 합정, 연남 등 5개동을 포함하는 지역의 주민들로 이루어진 커뮤니티다. 1995년 일부 지역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육아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시작된 커뮤니티는 이후 아이들의 성장과정에 따라 방과 후 교실, '꿈터' 방과후 문화센터, 성미산 학교 설립과 운영까지 이어졌고 자연스럽게 평생교육과정까지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마련하였다. 이후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유기농 먹거리를 공동구매하는 마포두레생협을 만들고 커뮤니티에 참여하지 않았던 지역주민까지 이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생협의 협동조합형 기업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서 동네부엌, 떡두레, 작은 나무 카페, 성미산 차 병원 등의 다양한 마을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성미산 마을이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시기는 지역개발 계획으로부터 '성미산 지키기 운동'을 전개하고 실제로 2년여에 걸친 투쟁 끝에 성미산을 지켜내면서 부터다. 성미산 지키기를 통해서 내부적인 결속력이 더욱 강화되고 마을 공동체 활동도 더욱

표 2-2 시민주체의 문화예술 활동과 지원 사례 비교 (성남문화재단 기준)

구분		시민주도의 문화공동체 활동		지역재단의 시민주체 문화예술 활동 지원			활동/지원 이름
							활동/지원 내용
구분	성남 문화 재단	성미산 마을	인천시민 문화예술센터	경기 문화재단	서울 문화재단	인천 문화재단	
관련 프로젝트	문화 클럽	시민 동아리	신나는 문화 공간 '놀이터'	아마추어 문화 예술 활동 지원 사업	시민 문화 예술 지원 사업	시민 및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 사업	
		자발적인 예술 동호회 조직 및 공간 운영		시민들의 예술 동호회 활동 지원			
	동네 만들기	성미산 마을 만들기	-	-	우리동네 문화가꾸기	공공미술 프로젝트	
		시민 중심으로 지역 환경과 생태를 지키고 여러 활동을 통해 커뮤니티 구성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환경 가꾸기 지원			
네트 워크	시민 주체 양성	시민자치	시민자치	-	-	시민문화 컨설팅사업	
		필요에 따라 자발적 학습과 기획수행을 통해 시민인력 구성		지역 문화예술행사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문화 통화	-	문화바람	-	-	-	
		별도의 통화제는 아니지만 문화예술 수용자 운동 진행		-	-	-	
사회 공헌	시민 축제	동네야 놀자	동아리 축제	-	시민축제 지원사업	-	
		시민들이 참가하고 기획, 운영하는 지역 축제 운영		시민 예술 동호회의 축제 지원			
	지역 공헌	지역소외계층 돌봄 서비스	-	-	-	-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봉사는 아니지만 소외계층 돌봄 서비스		-			
	-	성미산 마을극장	아트홀 '소풍'	-	-	-	
		시민자치의 마을 극장 운영		-			
		마포연대	-	-	-	-	
		문화정책은 아니지만 지역 주요 이슈에 대한 행정감시 체제 운영		-			

활성화되었다. 성미산 지키기가 성공한 이후에도 지역 환경과 생태를 지키기 위해서 마포연대를 설립하고 마포구 정책 모니터링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마포 FM0이라는 지역방송을 통해 지역사회의 이슈를 공론화시키고 주민 소통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지역사회의 복지문제에도 지역시설과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문화예술 활동부분에서는 7년째 마을 축제를 운영하고 있다. 성미산 커뮤니티 주최로 지역주민이 만들고 참여하며, 이를 통해 기존의 커뮤니티가 지역사회로 결합되고 확산되었으며 문화예술 동아리가 활성화되었다. 축제의 경험은 주민들이 일상생활권 안에서 전시, 공연, 문화예술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을극장을 만들자는 합의를 이끌어 현재 '성미산 마을극장'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문화재단²¹⁾, 서울문화재단²²⁾, 인천문화재단²³⁾은 모두 문화예술을 통해서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문화 정체성을 찾고자 한다. 경기문화재단은 1997년에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지역문화재단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들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며 경기도를 총괄하기 때문에 성남문화재단과는 사업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서울문화재단은 2004년에 설립되었으며 수도 서울의 다양한 정책사업과 연관성을 갖고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인천문화재단 역시 2004년에 설립하여 광역시이면서 동시에 서울 인접 도시의 문화재단으로서 성남문화재단과 유사한 고민을 갖고 있다. 여기서는 세 재단이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시민주체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사업들을 살펴보았다. 각 재단들은 예술위원회의 '지역협력형 사업'을 이관 받아서 해당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비교 결과를 보면, 시민주도 문화공동체 사례에서는 모든 활동들이 골고루 존재하는 반면 지역재단 사례에서는 대체적으로 관련 프로젝트 중심의 지원에 집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민주도의 문화공동체 사례 중에서 네트워크의 시민주체양성 분야와 문화통화 분야, 지역공헌 분야는 성남문화재단의 사업 내용과 세부적으로 일치하지는 않지만 추진하는 목적과 방향이 유사하기 때문에 성남 문화정책에서 시민주체의 활동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관련 프로젝트에서는 모든 사례가 예술동아리 활동을 운영 또는 지원하고 있다. 이는 예술동아리 활동이 시민주체의 문화예술 활동을 드러내는 가장 쉬운 접근법이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동네만들기 사업은 성미산 마을과 서울문화재단과 인천문화재단만 진행하고 있었는데 성미산 마을과 두 재단이 마을을 만들어가는 접근법에서 공동체를 어떻게 인지하고 구현해내는가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 성남문화재단은 문화공동체적 예술을 통한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미산 마을의 시민주체의 커뮤니티 형성과정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참고할 시사점이 있을 것이다.

21) 경기문화재단 <http://www.ggcf.or.kr>
 22) 서울문화재단 <http://www.sfac.or.kr>
 23) 인천문화재단 <http://www.ifac.or.kr>

지원시스템에서는 시민주체양성과 관련하여 두 시민주도의 문화공동체 사례와 인천 문화재단의 사례가 해당하고, 문화통화와 관련하여서는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의 문화예술 수용자 운동인 '문화바람'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주체 양성 분야에서는 시민주도 문화공동체에서 사업들이 시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학습이 일어난다고 판단했으며, 지역의 문화예술행사를 모니터링하는 인천문화재단의 시민모니터링 사업도 큰 범주에서 매개자 양성의 일환이라고 보았다. 인천문화재단에서는 2009년에 모니터링단 구성원의 다양화, 지속적인 활동의 확산을 위해 새로운 시민 육성 및 운영 체계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해당 사업을 잠시 중단한 후 변화를 모색 중이다.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의 '문화바람'은 시민들이 서울에 나가지 않고도 원하는 공연을 생활권에서 즐기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성남 문화통화가 추구하는 지역 안에서 시민들의 문화예술 생산, 유통, 소비의 자주성 확보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 해당사업은 문화바람 회원들이 월 1만원 이상(청소년과 장애인 5천원)의 회비를 내고 연간 5편의 공연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운영되며 2009년 현재 약 700명이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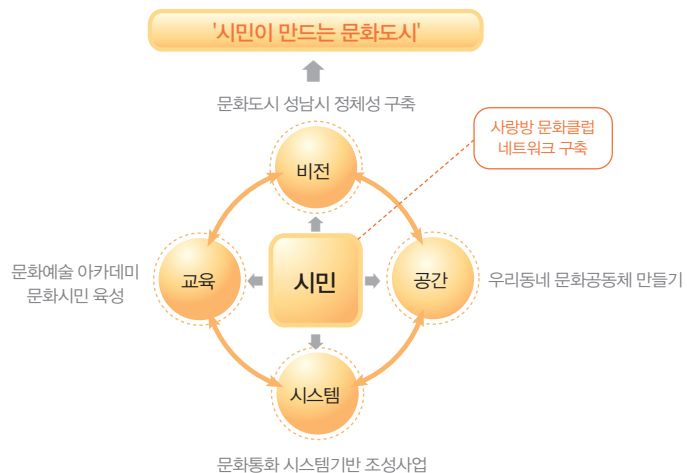
공동체지향성은 역시 시민주도의 문화공동체 활동이 두드러진다. 이 분야에서 재단의 지원은 서울문화재단의 '시민축제 지원사업'이 유일하다. 축제의 경우 성미산 마을과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모두 기획부터 평가까지 시민들이 주도하며 이를 통해 내부결속력을 다지고 외부 사람들에게 문화공동체 활동을 알리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지역공헌 분야에서는 성남문화재단이 문화클럽들이 지역을 찾아가서 공연, 전시 등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늘리도록 지원하는 것에 비해 성미산 마을의 경우 직접적인 소외계층 돌봄 서비스에 참여하는 점이 다른 점이다. 활동 내용은 다르지만 돌봄 서비스 사업은 성미산 마을의 시민자치 발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추구하는 시민주체의 활동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성미산 마을의 '마포연대'의 정책감시와 대안 제시 활동도 같은 의미에서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정책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정책참여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두 공동체 사례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극장 사례를 통해서도 성남의 시민주도 문화예술 활동 공간이 진화할 수 있는 수준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상의 문화공동체적 예술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문화공동체적 예술관을 도입한 사업들이 최근에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성남과 유사한 문화예술동아리 지원사업이나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들이 확산되고 있다. 둘째, 예술활동을 통해 공동체를 위한 공헌으로 나아가는 수준은 시민주도의 문화공동체 사례들에서 주로 발견되었다. 이를 통해 오히려 시민주도의 문화공동체 사례들이 이벤트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과와 연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성남시의 시민주체성을 문화정책에서 강조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지역문화재단 주도의 시민문화예술 활동에서 눈에 띄는 지원시스템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문화공동체적 예술은 그 성격상 시민의 자발성을 촉진시키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하므로 그에 맞는 지원방식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이 미흡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성남시의 문화비전을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성남이 지향하는 문화공동체적 예술관을 좀 더 구체화하고 지원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남문화재단은 그동안 다른 지역문화재단과 달리 시민주체 문화예술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한 체계적 계획을 가지고 문화정책을 운영해왔다. 관련 프로젝트 분야에서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통해 문화클럽의 공간을 지원해주거나 학습과 숙련을 위한 전문가 교육 지원,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연결 활동을 지원해주고,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에서 지역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성남 문화정책만의 장점이다. 또한 프로젝트와 공동체 지향의 공헌 활동을 지원하는 지원시스템을 별도로 설정하고 시민주체를 육성하려는 것과 문화통화를 통한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시도 역시 앞선 정책인식을 보여 준다. 사회공헌 과정을 설정하고 시민과 지역 정체성을 연결하는 시도도 성남 문화정책만의 특별함이다. 성남 문화정책의 장점을 살리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운영체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3) 5대 문화정책 사업의 성숙과정

2단계에서 성남의 5대 문화정책 사업은 문화공동체 예술 패러다임의 도입으로 정책 비전에 대한 해석이 깊어지고 시민 주도적 성격이 더욱 뚜렷해졌다. 성남의 차별화인 문화정책은 지난 4년간의 수행과정에서 지속적인 변화발전 과정을 통해 비전과 사업 간, 사업과 사업 간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다. ‘2단계 5개년 발전계획’에서는 5대 문화정책 사업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여 사업의 성장에 따른 변화를 표현했으며, 여기서는 새로운 5대 문화정책 사업 개념도에 따라서 사업의 성숙과정을 알아보겠다.



24) 노재천, 2009. 문화공동체 예술정책과 사랑방 문화클럽, 세계문화클럽포럼 자료집, 성남문화재단.

먼저, 5대 문화정책 사업들이 2006년에는 모두 같은 비중으로 소개되었으나, 대외적으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실증자료가 풍부하고 다른 지역의 민간단체나 지원기관 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가장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내부적으로도 기존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던 예술동아리에 '사랑방 문화클럽'이라는 브랜드와 정체성을 만들어주고, 요구조사를 통해 공간과 네트워크, 사회공헌 활동 지원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해당사업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다.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경우 2단계에서 지역 예술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결합하면서 지역적 정체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문화예술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공간을 바꾸고 이웃과 소통하면서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 사업과 함께 성남시민의 주체성을 드러내는 주요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더불어 동네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강화하려는 '2단계 5개년 발전계획'에 따라서 두 사업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졌다.

문화도시 정체성 구축 사업은 '시민주체의 문화예술 창조도시'라는 비전과 각 문화정책 사업을 연결하고 대내외에 공유시켜왔다. 학제 간 연구 TFT를 통해 주요 정책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문화정책 대화모임과 심포지엄, 세계문화클럽포럼 등을 개최했다. 특히 2단계에 접어들면서 국내외 시민주체 문화예술 활동의 관련 네트워크에서 비전과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성남외부 발신기지로서의 역할을 요구받으면서 변화된 성남 문화정책의 국내외 포지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업을 내실화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정책운명을 수행할 수 있는 재단의 지원역량 향상이 요구된다.

문화예술 아카데미 문화시민 육성 사업은 2009년에 처음 주요 문화정책 사업으로 등장하였다. 1단계 사업추진 결과 성남시민의 창작활동 진흥 사업이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통합·연계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후자에 흡수되었고 기존의 창작활동 진흥 사업의 자리를 문화예술 아카데미 문화시민 육성 사업이 대체하게 된 것이다. 이는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에서 지역 예술가와 시민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면서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 사업 및 문화통화 시스템 구축 사업과 더불어 시민들의 문화예술 참여 역량이 더욱 강조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육성분야에서는 2008년에 이어 '지역커뮤니티 리더 및 시민'으로 대상을 구체화한 인문학 강좌가 실시되었고,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의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구성원들의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문화정책 사업이 성장할수록 시민들의 주도적 역할이 강조되면서 점점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시민 역량이 요구될 것이다. 시민들이 참여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사업체계와 함께 시민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사업이 절실한 시점이다.

문화통화 시스템 기반조성 사업은 그 안에서도 사랑방-동네-도시로 연결되는 발전 단계를 가지고 2009년까지 사랑방 단계를 수행했다. 사랑방 단계에서는 문화클럽이 문화통화를 사용하여 연습 공간이나 공연, 전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클럽 간 혹은 회원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업이 진행되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25) 2009년 12월 18일에 진행된 <연구사업 중간보고회>에서 성남문화통화팀장과의 인터뷰 내용에서 참고함.

위해서 사랑방 문화클럽의 운영위원이 자발적으로 문화통화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두 사업을 보다 잘 연결하고자 했으나 시민들로만 구성된 운영위원회로는 다른 공공기관과의 협력 등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문화통화 운영위원들은 재단 담당자와 운영위원, 외부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²⁵⁾. 문화통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품목을 다양화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 문화정책 사업 안에서 거래가 안정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요 문화정책 사업들과의 연계 활동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5대 문화정책 사업에서 비전관련 분야가 더욱 전문화되고 확장되면서 성남 내외부에 선도적인 비전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시민과 공간 관련 분야의 사랑방 네트워크 구축 사업과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관계는 예술컨텐츠와 지역공간을 중심으로 점점 더 밀접해지고 대외적으로도 대표적인 성남시민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육성과 시스템 관련 분야의 문화예술 아카데미 문화시민 육성 사업과 문화통화 시스템 기반 조성 사업은 아직 초기단계로서 사랑방 네트워크 구축 사업과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과 제도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잘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각 사업들의 성숙에 따른 이와 같은 변화에는 성남 문화정책 사업의 재통합을 통한 새로운 유기적 운영체제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내외부적으로 성남 문화정책의 새로운 포지셔닝이 필요하다.

4) 문화정책 사업의 재통합화 추진 과정

지금까지의 5대 정책사업의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비전관련 부분과 시민주체의 문화예술 활동이 두드러지는 핵심 프로젝트,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지원체계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같은 시도는 1단계에서 5대 정책 연계발전 방안 연구에서 먼저 시도된 적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사업들이 충분히 구현되어 축적된 성장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제안으로서만 남겨졌었다. 하지만 2단계가 시작된 현 시점에서는 문화정책의 비전이 문화공동체적 예술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서 보다 심화되고 널리 공유할 주제로 발전되었고,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과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라는 구체적인 사업의 성장으로 성남의 시민주체성을 확인하고 대내외적으로 성남 문화정책의 성과를 드러낸다. 또한 시민주체성이 뚜렷해짐에 따라 육성 체계와 문화통화 시스템이 시민의 주체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세 개의 차원에서 5대 문화정책을 재통합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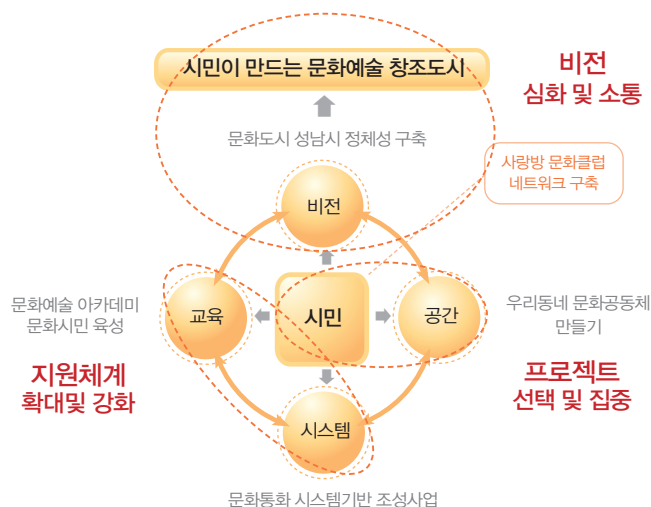


그림 2-8 성남의 5대 문화정책 사업의 재통합

비전은 ‘성남의 문화공동체적 예술 패러다임을 어떻게 심화연구하고 성공적으로 소통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시민주체의 문화예술 창조도시’라는 비전과 문화도시 성남시 정체성 구축 사업을 통합할 수 있다. 비전이 가지는 3 가지 의미를 분류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 체계와 비전 공유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을 통해 성남 문화정책을 새롭게 포지셔닝할 수 있다.

프로젝트는 ‘성남의 문화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선택 및 집중을 할 수 있는 문화프로젝트에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대해서는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 사업과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대표적인 문화프로젝트로 선정할 수 있다. 지난 4년 간 축적된 구체적인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성남 문화정책이 실제 시민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발전되는지를 보여 줄 수 있으며, 비전을 구체화하는 주요 사업으로서 포지셔닝 될 수 있다.

지원체계는 ‘성남의 문화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지원시스템을 확대하고 체계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그 동안의 사업 운영과정에서 문화예술 아카데미 문화시민 육성 사업 및 문화통화 기반시스템 구축 사업은 두 가지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되어 어떻게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해왔다. 따라서 두 가지 사업을 지원체계로 분류하고, 더불어 기존 사업운영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법적 지원체계, 공간 지원체계, 지원조직체계에 관한 문제를 통합하여 4 가지 지원체계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육성체계, 법·제도적 지원체계, 공간 지원체계, 지원조직체계로 지원체계를 포지셔닝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화정책 사업의 재구성은 기존의 정책사업 운영체제를 보다 유기적인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각 사업들이 문화정책 운영체제 안에서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성남 문화정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맞는 성남의 문화도시 포지셔닝이 다음과 같이 진행될 수 있다.

5) 문화도시 포지셔닝의 방향

문화도시 포지셔닝을 위해서는 도시 속에서 지속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정책 운영체제를 만들고 도시의 문화브랜드를 설정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정책 운영체제는 문화정책 비전을 구체화하고 확산시키는 문화비전 포지셔닝 전략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실행되는 문화프로젝트 포지셔닝 전략,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비전이 달성되도록 돕는 문화지원체계 포지셔닝 전략을 통해서 구축될 수 있으며, 성남의 문화브랜드는 포지셔닝 전략과 그에 따른 추진사업, 사업별 실행 프로그램에서 각각 도출될 수 있으며 이를 포괄하는 하나의 문화브랜드로 만들어진다.

여기서는 성남이 추구하는 비전을 브랜드화한 성남의 문화브랜드와 문화비전 포지셔닝, 문화프로젝트 포지셔닝, 문화지원체계 포지셔닝 전략 체계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다.

5-1) 성남의 문화브랜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성남의 문화브랜드는 『문화사랑시 성남』이다.

『문화사랑시 성남』은 ‘시민이 문화를 사랑하는 도시 성남’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시민주체의 문화예술 창조도시’라는 비전을 부드럽고 친근하게 표현한 것으로 성남의 대표적인 문화브랜드로 제안한다.

문화사랑시 성남

■ 그림 2-9 ■

성남의 통합 문화브랜드『문화사랑시 성남』

성남의 문화브랜드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책연구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되어왔으며, 가장 최근의 연구인 ‘2단계 5개년 발전계획’에서는 ‘사랑방, 성남’, ‘사랑방 문화클럽, 성남’, ‘문화사랑방, 성남’ 등을 문화브랜드로 제안했었다.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5대 문화정책 사업의 핵심 사업으로서 비전을 가장 잘 나타내고 1단계에서 대외적인 인지도와 호감도가 상승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브랜드가 성남이 추구하는 ‘시민주체의 문화예술 창조도시’라는 도시적 비전과 문화공동체적 예술을 지향하는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모든 문화정책 사업과 비전을 포괄하는 브랜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사랑시 성남』을 성남의 문화브랜드로 제안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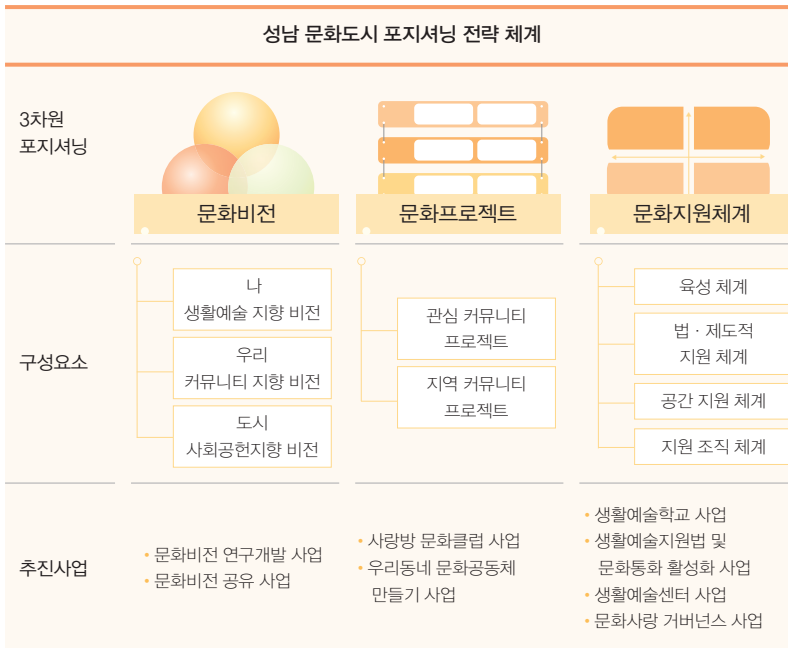
시민들이 생활 속의 예술을 통해서 삶의 지향점을 만들어가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간다는 의미에서 ‘문화’를 제시했으며,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즐기는 성남 시민들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사랑’을 선택하였다. 이는 기존의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가지고 있는 인지도와 호감도를 살리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문화사랑시 성남』을 알리는 구체적인 전략으로서 다음과 같은 문화도시 포지셔닝 전략을 수립하였다.

5-2) 문화도시 포지셔닝의 전략 체계

문화도시 포지셔닝은 문화비전 포지셔닝, 문화프로젝트 포지셔닝, 문화지원체계 포지셔닝의 세 가지 차원으로 형성되며, 각 차원의 구성요소와 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표 2-3 문화도시 포지셔닝의 전략 체계



문화비전 포지셔닝과 문화프로젝트 포지셔닝, 문화지원체계 포지셔닝은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운영되며, 각 포지셔닝 전략은 개별 구성요소에 맞는 추진사업을 통해 전개할 수 있다. 추진사업들은 다시 각 추진방향에 따른 실행프로그램들로 구현될 수 있다.

5-3) 문화비전 포지셔닝 전략

『시민주체의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이라는 문화정책 비전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중복되어 있다. 첫째, 시민이 개별적으로 문화예술을 즐기고 창조하는 도시라는 의미다. 이는 '나'라는 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며 즐거움을 추구하는 공간이다. 둘째, 시민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고 문화공동체를 구성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개별적인 시민이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문화예술의 즐거움과 의미를 공유하여 새로움을 지향하는 과정이다. 셋째, 시민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문제 해결방안을 창조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나'라는 개인이 '우리'를 형성하고 다양한 '우리'가 모여서 '도시'를 형성하는 단계로서 시민이 지역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참여하는 개인과 공동체, 도시가 공동의 가치를 형성한다.

"시민이 만드는 문화예술 창조도시"



문화사랑시 성남

그림 2-10 문화비전 포지셔닝 전략

비전 성남의 문화공동체적 예술 패러다임을 어떻게 **심화**연구하고 성공적으로 **소통**시킬 수 있을까?

- 문화비전 연구개발 사업
- 문화비전 공유 사업

나와 우리, 도시가 겹치는 것은 세 가지 활동이 계단식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활동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때문이다. 생활예술, 커뮤니티, 사회공헌 역시 별도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영역과 범주를 넘나들며 형성되어 구체적 사례들을 발굴하고 그 관계를 쉽게 설명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기존의 비전을 세분화한 이 개념들은 2단계에서 연구개발과 대내외 공유체계를 구성하는 사업을 통해 확산될 수 있다.

5-4) 문화프로젝트 포지셔닝 전략

문화비전 포지셔닝 전략은 성남 문화정책을 차별화시키는 주요 프로젝트로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문화프로젝트 포지셔닝 전략은 이미 대내외적으로 성남 문화정책 사업을 알려왔고 사업의 발전에 따라 시민들의 주도적 참여가 더욱 기대되는 '사랑방 문화클럽 프로젝트'와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로 구성할 수 있다.

26) 공동체 활동 관련 사례분석 및 지원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에서는 공동체를 관심공동체, 지역공동체, 정주형공동체로 분류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랑방 문화클럽 프로젝트는 관심공동체로,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는 지역공동체로 볼 수 있음.

두 가지 프로젝트를 구분하는 중심축은 '커뮤니티의 구성 동기'이다. '사랑방 문화클럽 프로젝트'는 시민들이 각자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모인 것이고,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는 시민들이 자신의 생활공간인 '지역'을 중심으로 모인 것이다²⁶⁾. 모두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관심사를 표현하고 구성원들과 관계를 맺으며 문제를 해결해나가기만 두 가지 프로젝트는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한다.



그림 2-11 문화프로젝트 포지셔닝 전략

프로젝트 성남의 문화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 및 집중을 할 수 있는 문화프로젝트는 무엇이 있는가?

- 사랑방 문화클럽 사업
-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서로 다른 축의 프로젝트가 함께 비전을 달성해나갈 수 있는 것은 같은 세 가지 단계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사랑방 - 사랑마루 - 사랑마당'의 단계가 그것인데 이는 자발적으로 문화클럽을 운영하던 시민들의 정책적 지원 요구를 반영한 성남만의 시민 생활예술 활동 지원단계로서 시민들이 경험적으로 축적한 커뮤니티 운영 활동의 방향을 담아낸 것이다²⁷⁾. 따라서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에서도 이 단계가 적용될 수 있다. 사랑방은 시민들의 모임공간에 대한 지원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마련된 정책으로 시민들이 예술을 매개로 만나고 학습하는 공간을 일컫는다. 이런 생활예술 공간은 성남의 곳곳에 형성되어 모든 시민이 일상적으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도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사랑마루는 시민들이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연결되며 자치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생활예술 활동을 숙성시켜 사랑방과 사랑마당의 시민예술 활동을 연결한다. 사랑마당은 시민들의 예술역량이 표출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공연이나 전시활동 등을 통해 축제 또는 마을 만들기 등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27) 성남문화재단. 2006. 사랑방문화클럽 발전방안 연구. 성남문화재단.

두 프로젝트는 시민주체성이 강화되면서 보다 밀접해지고 있다. 시민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과정은 문화클럽이나 동네에서 취미나 지역 관련 관심사를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소속감과 정체성을 갖고 상호 연결되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에 공헌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마지막에 언급된 공동의 문제나 사회공헌 관련 주제는 두 프로젝트가 '사랑방문화클럽축제'나 '성남만들기' 등을 통해 연결되면서 구체화될 수 있다.

그 동안 시민들이 사업 참여경험을 통해 획득한 지식과 정보들이 개인과 커뮤니티 안에 상당량 축적되어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지식과 정보는 '사랑방-사랑마루-사랑마당'의 커뮤니티 활동 방향이 사업 운영체제에 반영된 것처럼 향후 문화프로젝트 전략의 수행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대안들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프로젝트 성장 과정에서 개인적 발전 과정을 녹여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고 이는 문화지원체계 포지셔닝 전략에 따라서 추진될 수 있다.

5-5) 문화지원체계 포지셔닝 전략

문화프로젝트 포지셔닝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잘 짜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문화지원체계 포지셔닝 전략은 크게 육성체계, 제도적 지원체계, 공간 지원체계, 지원조직 체계로 구성된다.

지원체계 성남의 문화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지원시스템을 **확대**하고 **체계화**할 수 있을까?

- 생활예술학교 사업
- 생활예술지원법 · 문화통화 활성화 사업
- 생활예술센터 사업
- 문화사랑 거버넌스 사업



그림 2-12 문화지원체계 포지셔닝 전략

육성체계는 문화비전에 공감하고 문화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성남시민의 성장과정을 제안하고 문화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시민역량을 육성하는 체계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성남 문화정책은 성남시민이 문화예술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모두가 생활예술가이면서 동시에 생활예술매개자(기획자, 교육자), 지역을 변화시키는 혁신자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육성체계에서는 이에 맞게 문화정책 전체에서 추구하는 시민의 역량이 프로젝트와 어떻게 연결되고 육성될 수 있는지를 체계화해야 한다. 이를 통합하는 사업으로 생활예술학교 설립과 운영을 제안한다.

법·제도적 지원체계는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법과 문화통화 시스템이 그것이다. 법과 관련해서는 ‘기본계획’에서부터 ‘창조도시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되었다. 실제 문화정책 사업들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성남의 다양한 주체와 공간의 협력이 필요한데 법의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테면 관할이 다른 공공기관의 야간개방이나 유희공간의 사용 제후 등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여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법적 지원은 빠른 시일 안에 만들어져야 하며 이를 ‘생활예술지원조례’로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문화통화 시스템의 경우 기존의 5대 문화정책 사업으로서 독자적인 사업으로 인식되었지만 실제 내용에서 성남내부에서 시민들이 문화예술의 창작, 유통, 소비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므로 문화지원체계 포지셔닝 전략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이 보다 활발해지도록 문화통화 시스템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공간 지원체계는 시민주체의 문화예술 활동이 진행되는 공간을 온/오프라인에서 어떻게 확보하고 지원할 것인지를 제안한다. 프로젝트의 온라인 공간을 활성화하고 사랑방 문화클럽과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의 오프라인 거점들을 점차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지역 곳곳에 공간을 확보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연습실, 강의실, 공연장 등이 모여있는 생활예술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제안한다.

지원조직 체계는 시민과 성남문화재단, 외부 전문가 조직이 어떻게 협치체제를 구성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남문화재단이 문화정책적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역할에 따라서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문화비전과 문화프로젝트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지원체계 포지셔닝 전략의 구성요소들과도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 문화사랑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성남 문화재단이 중심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 2단계 문화정책의 성과

2단계는 성남 문화정책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르면 1단계에서 형성된 시민주체의 기초를 바탕으로 사업의 구조를 세우고 3단계로 나아가도록 체계화하는 시기이다.

2단계의 초입에서 『시민주체의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이라는 문화정책의 비전에 문화공동체적 예술이라는 새로운 예술 패러다임을 도입하면서 문화비전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문화정책 사업들이 성숙되면서 새로운 5대 문화정책 개념도가 만들어졌다. 대외적으로는 그 동안의 성남 문화정책의 성과가 알려지면서 성남이 관련 문화정책의 발신기지로서 새롭게 포지셔닝될 필요가 생겼다.

따라서 2단계의 주요 추진과제인 ‘문화공동체 운영체제 만들기’를 수행하기 위해서 문화정책 추진목표를 성남의 문화도시 포지셔닝으로 설정하였다. 문화도시 포지셔닝은 문화비전 포지셔닝, 문화프로젝트 포지셔닝, 문화지원체계 포지셔닝의 세 가지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으며, 각 포지셔닝을 위한 사업은 총 8개로 제안한다. 문화비전 포지셔닝을 위해서는 문화비전 연구 개발 사업과 문화비전 공유 사업이, 문화프로젝트 포지셔닝을 위해서는 사랑방 문화클럽 사업과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문화지원체계 포지셔닝을 위해서는 생활예술학교 사업과 생활예술지원법 및 문화통화 활성화 사업, 생활예술센터 사업, 문화사랑 거버넌스 사업이 그에 해당한다. 추진사업에서 실행되어야 할 세부 실행프로그램들은 III장, IV장, V장에서 자세히 살펴 보겠다.

문화공동체 운영체제 만들기	
정책추진목표	추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비전 포지셔닝 * 문화프로젝트 포지셔닝 * 문화지원체계 포지셔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비전 연구 개발 사업 * 문화비전 공유 사업 * 사랑방 문화클럽 사업 *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 생활예술학교 사업 * 생활예술지원법 및 문화통화 활성화 사업 * 생활예술센터 사업 * 문화사랑 거버넌스 사업

그림 2-13

성남 문화정책의 2단계 5개년의 추진목표와 사업

III

문화비전 포지셔닝

Cultural Vision's Positioning

-
1. 문화비전 포지셔닝 방향
 2. 추진사업

1. 문화비전 포지셔닝 방향

문화사랑시 성남

그림 3-1

성남의 통합 문화브랜드 '문화사랑시 성남'

본 장에서는 '비전'으로서 성남의 철학적 정책 목표와 위치를 구체적으로 설정해본다. 정책의 근간이 되는 '비전'의 지향점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통해 성남이 표방한 '시민이 만드는 문화예술창조도시'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시민의 주도적 역할과 예술창조를 통한 문화도시 및 창조도시를 지향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성남의 문화비전을 상징하는 문화브랜드 2단계 5개년 계획에서는 '사랑방, 성남'을 제시한 바 있다. '사랑방 문화클럽'이 5대 정책사업 중에서 대내외적으로 가장 알려진 사업이고 '사랑방'은 성남의 문화비전을 대표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5대 정책사업 체계에서 비전-프로젝트-지원시스템의 문화정책 3요소로, 정책체계로 변화하게 되면 사랑방문화클럽과 사랑방보다는 보다 성남이 지향하는 비전을 표현할 수 있는 문화브랜드가 필요하다.

성남시 문화비전 창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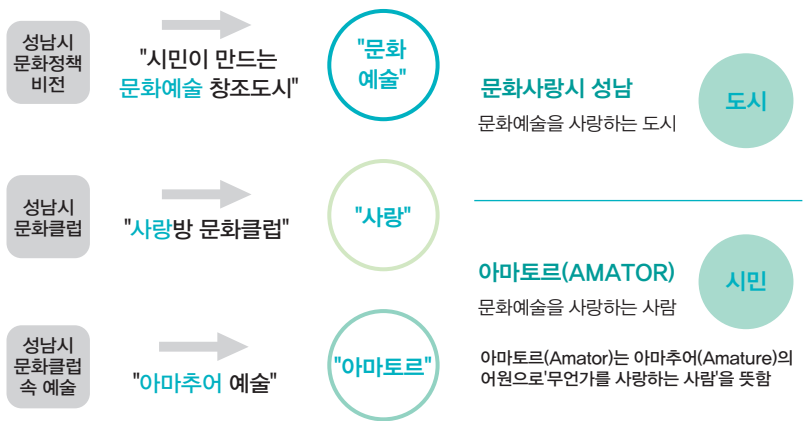


그림 3-2 성남시 문화비전 창출과정

이에 따라 『문화사랑시 성남』을 『사랑방, 성남』의 확대의 문화브랜드로 제안한다. '문화사랑시 성남'은 '문화를 사랑하는 시민의 도시'라는 의미로 창조도시, 문화도시, 시민주체성과 같은 개념어가 아닌 시민들에게 감성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문화브랜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랑방-사랑마루-사랑마당'으로 대표되는 성남문화재단의 주요 정책개념에 반복되는 '사랑'이라는 공유단어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아마추어(Amateur)의 라틴어 어원인 '아마토르(Amator)'가 '사랑하는 사람(Lover)'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추어 예술의 메카로서의 성남'으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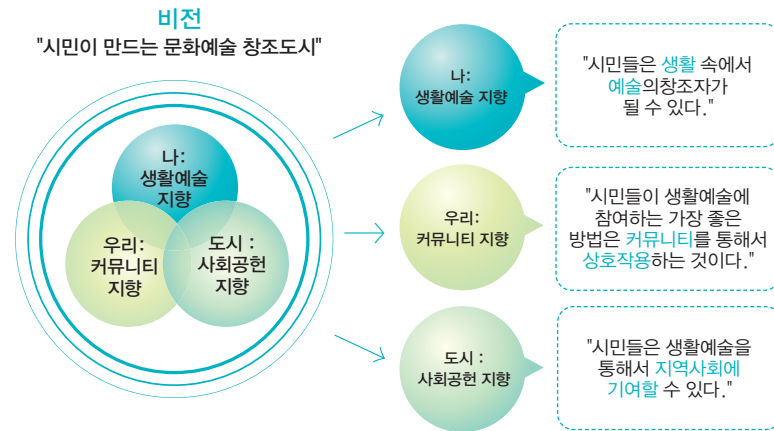


그림 3-3 문화비전 포지셔닝

성남의 문화비전은 개인과 우리 그리고 도시차원에서 복합적 의미를 가진다. 비전은 3가지 지향점을 통해 구체화된다. 문화비전의 3대 지향점은 첫째, '생활예술'을 지향한다. '시민들이 예술의 창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생활체육과 같이 생활에 밀착된 생활예술을 지향하는 것을 말한다. '생활 속의 예술' 활동이란, '일반 시민들이 그들의 일상적 삶 속에서 직접 참여하거나 체험하는 예술창작과 표현, 향유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일반 시민은 전문적인(Professional) 예술활동을 수행하는 예술가와 달리 물질적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일상적 삶이란 그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일터와 가정,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등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뜻한다. 즉 '생활 속의 예술' 활동은 여가 시간이 부족하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서민들도 일상적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술 활동을 행하고 예술의 향기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²⁸⁾ 이러한 정책적 지향점은 예술의 향기가 국민의 일상속으로 스며들기 위한 것으로 예술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역할을 보다 능동적으로 재설정(Re-Positioning) 하고 시민주도의 생활밀착형이고 상향적 예술 참여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활예술 지향은 한국에서 '생활 속의 예술' 정책 흐름의 확산에 기여해온 성남이 패러다임을 이끌어 가는 주체로서 성남만의 차별화되는 '생활예술' 정책을 만들어 가는 동인이 될 것이다.

둘째, '커뮤니티'를 지향한다. 생활예술은 커뮤니티를 통한 상호작용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생활예술은 커뮤니티를 통한 상호작용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히 문화공동체를 기반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생활 예술 활동이 배양되므로 기존의 예술지향적인 문화정책과는 차별화 될 수 있다. 자발적인 생활예술 활동들은 시민의 주도로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시민과 시민간의 다양한 관계 형성과 상호작용을 이루고 이러한 커뮤니티를 기반한 활동들이 예술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게 된다. '생활예술'이 개인의 자아실현 영역에 머물렀다면, '커뮤니티를 통한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함께 모여 '도시'를 변화시키는 관점으로 확장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28) 양효석, 2009. '생활 속의 예술'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 현황과 과제. 문화의달 기념 학술회의-시민이 창조하는 문화의 세기 자료집. 인천문화재단.

셋째, '사회공헌'을 지향한다. 생활예술은 나라에 따라 자발적 예술, 비공식 예술 등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이런 다양한 생활예술은 공동체의 정체성 증진, 집단적 유대, 공동체 구축, 문화적 전통의 고수, 경제적 가치 창출 등 공동체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발전에 기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생활예술은 예술 자체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시민들이 속한 공동체의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성남의 생활예술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연, 전시, 축제, 마을만들기 등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발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지역공동체 개발이라는 사회공헌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1) 문화비전 연구개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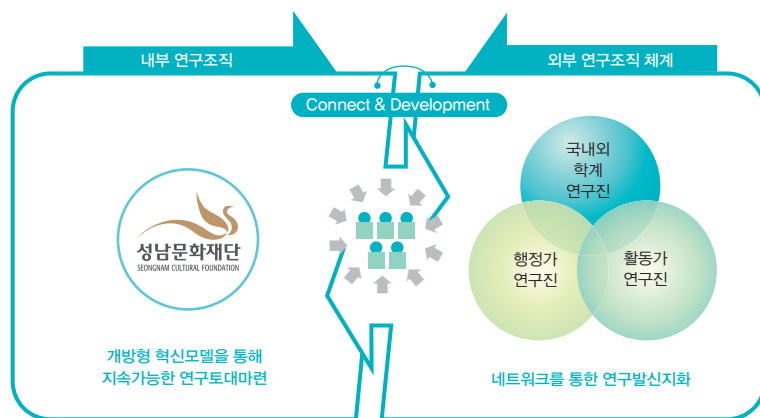


그림 3-4 문화비전 연구개발 사업

성남의 시민주도 문화예술 정책은 1단계 3년 동안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주도의 생활예술 진흥이라는 새로운 예술 패러다임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또한 국가적 차원의 생활 속 예술 지원이라는 정책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국내의 흐름을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생활예술이나 아마추어 예술 진흥에 대한 발신기지로써 성남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게 되면서 관련 연구개발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성남에서만 이루어지는 폐쇄적 연구개발체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만한 능력을 충분히 갖춘 전문연구진들과의 수평적 연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문화비전 연구개발체계를 개방형 연구체계로 설정하고 성남내에서 뿐만 아니라 같은 고민을 하는 유관 시와 문화 활동가들과 공유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특히 개방형 혁신모델(Connect & Development)을 도입하여 외부의 연구 추진체계와 내부 연구 조직간의 협력을 통한 개발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개방형 혁신모델(C&D) 연구개발 체계는 성남문화재단이 설립부터 시민이 만드는 문화예술 창조도시라는 비전하에 외부 연구자들과 테스크포스팀 형식의 연구모임을 마련하여 지

속적인 연구 모임을 해온 것이 발전된 모델이다.

성남문화재단은 내부 연구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꾸준히 국내외 외부전문가와의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많은 결실을 거둔바 있다. 향후 일회적인 행사에 머물렀던 연구모임이나 심포지엄 등을 발전시켜 더욱 견고한 개방형 혁신 연구개발 모델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2) 문화비전 공유 사업



그림 3-5 문화비전 공유사업 실행프로그램

성남문화재단은 지난 3년간 ‘시민이 만드는 문화예술 창조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문화예술 창조도시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대내외적인 공유체계가 미흡했다. 1단계 3개년 정책사업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를 홍보자원으로 활용하는 데는 미흡했다. 하지만 ‘사랑방 문화클럽’이나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등의 사업은 많은 성공사례를 낳았으며 이는 중요한 홍보 자원이 되었다. 비전을 공유하는 홍보의 핵심은 별도의 홍보수단보다 앞서 스토리 자체의 힘으로 확산될 수 있다. 성남을 넘어서 외부에 홍보가 되는 것도 결국 별도의 광고가 아닌 이야기의 본질적 내용을 얼마나 잘 만드는가에 있으며 그 이야기가 얼마나 호소력 있고 설득력 있는가에 달려있다. 즉 대내외적 공감을 유도하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창조도시로서의 본질에 충실한 강력한 이야기이자 브랜드를 만들고 이를 통해 비전을 공유해야한다. 특히 선도적으로 시민 주도의 자발적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만들어진 성남은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기 위해 외부발신기지화 사업 등을 통해서 문화예술 창조도시로서의 비전을 천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 [문화사랑시 성남]이라는 문화브랜드 아래에 이를 각각 시민주도형 공유체계, 교육형 공유체계, 네트워크형 교육체제라는 추진방향을 통해 세부적 실행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별도의 홍보채널을 통한 홍보 외에도 시민이 주체가 되어 휴먼네트워크를 통해 홍보하거나 지역간 네트워크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비전 공유가 가능하다. 시민이 주도가 되는 시민주도형 공유체계란 매스

미디어 홍보나 온라인 미디어 홍보 등에서 시민이 주체적으로 비전을 전파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를 독려하는 것으로 시민이 만들어가는 문화예술 도시의 포지셔닝을 확고히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포럼, 심포지엄 등의 교육행사 등을 통한 교육형 공유체계를 통해서도 비전의 내용을 교육하고 홍보할 수 있다.

지난 3년간 지속되어온 문화예술 창조도시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재단 내에서의 경험 등을 전국의 문화활동가들과 공유하는 전국단위의 문화 활동가 모임을 성남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2009년에 처음 추진했던 세계 문화 클럽 포럼(World Culture Club Forum)이나 일본의 국민문화제에 초청받아 해외 벤치마킹을 수행하는 등의 국제적으로 공유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전국단위, 세계규모의 연구 및 네트워크를 만드는 사업들을 꾸준히 발전시켜 세계 속의 아마추어 클럽 진흥 도시 등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문화비전의 발신기지화 사업을 지속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전 공유체계는 매체를 활용한 홍보 외에도 공유의 대상자에 따라 각자 다른 차원에서 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시민주도형 공유체계, 교육형 공유체계, 네트워크형 공유체계는 대상자의 범위에 따라 세부 실행프로그램으로 구체화 될 수 있다. 실행 프로그램은 성남시민과 단체, 성남시를 대상으로 하는 성남차원 비전공유체계 프로그램과 전국민을 비롯한 타도시, 정부까지 아우르는 국가차원 비전공유체계 프로그램과 세계의 문화도시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 차원 공유체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내부적으로는 성남시민에게 비전을 인식시키고 스스로 자발적인 문화비전 전파자가 될 수 있도록 기회와 교육을 마련하여야 한다. 대내외적인 비전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성남시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성남차원의 공유체계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성남차원의 소통의 성과는 매체를 뛰어넘는 영향력을 갖고 국가차원의 공유 확산에 도움을 주게 된다. 교육체계와 다양한 네트워크 체계를 통해 국가 차원의 공유가 확산되어 성남이 국가를 대표하는 생활예술이나 아마추어 문화클럽 진흥도시로서의 포지셔닝을 통해 국제적인 공유토대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시민주도형 공유체계, 교육형 공유체계, 네트워크 공유체계라는 3가지 추진 방향을 통해 시민차원, 국가차원, 세계차원의 다양한 대상을 아우르는 실행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성남시의 문화비전은 확산되고 공유될 수 있을 것이다.

2. 추진사업

1) 문화비전 연구개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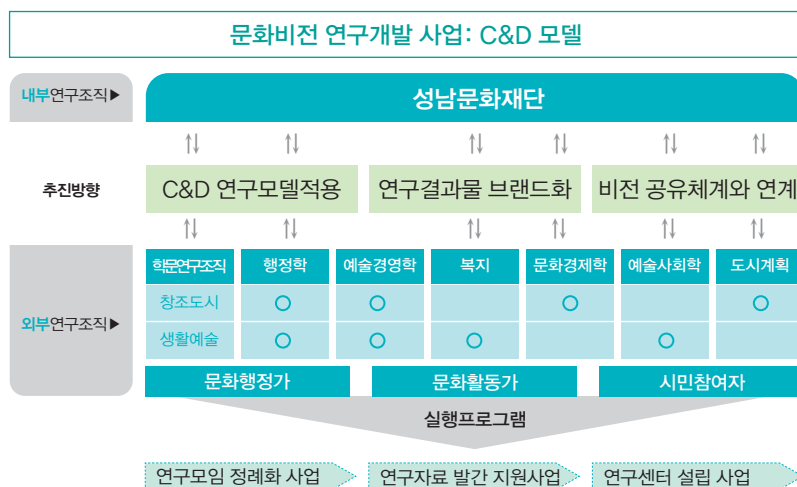


그림 3-6 문화비전 연구개발 사업 추진방향 및 실행프로그램

1-1) 추진방향

(1) C&D 연구모델 적용

- C&D(Connect&Develop : 연결개발) 모델 적용 : 내부의 R&D(연구개발) 역량을 보완하고 외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구하고, 연구를 발전시켜 차별화된 혁신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연구 개발 시스템의 적용
- 성남내부 R&D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할 수 있으며 연구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음

(2) 연구결과물 브랜드화

- 연구모임, 대화모임, 포럼 등의 연구내용을 공유하는 모임을 통한 결과물을 비롯하여 연구네트워크를 통해 축적되는 연구자료를 하나의 통합 연구 브랜드로 포지셔닝하여 비전 공유 및 연구확산에 활용

(3) 연구개발체계와 비전공유체계의 연계

- 개방형 혁신 연구체계를 통해 산출되는 연구물을 비롯하여 다양한 연구모임 및 포럼 등을 비전 공유의 장으로 활용함
- 연구 모임 등은 교육형으로, 연구네트워크 또한 비전 공유에 활용함

1-2) 실행 프로그램

(1) 개방형 혁신 국내외 연구 체계 구축 프로그램

- 성남문화재단 내부 연구조직과 협력하고 성남의 비전을 공유하며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외부 전문 연구 조직체계 마련함
- 교수 등을 비롯한 관련 학계 연구자, 정책담당자, 연구원, 문화활동가, 참여 시민 등의 폭 넓은 생활예술 전문 연구진을 구성함
- 성남시 문화비전 연구, 생활예술 진흥, 시민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비롯한 성남비전 포지셔닝 관련 연구 등을 포함함
- 외부네트워크를 발족하고 지속적 교류에 따른 자료집 제작 등을 하며 산출된 연구물은 향후 설립되는 연구센터를 통해 체계적, 전문적으로 관리함
- 연구 협의체 등의 조직화, 연구위원 등의 위촉을 통해 지속적 활동 장려함

(2) 정기적 연구모임 정례화 프로그램

- 정기적 대화모임 · 연구모임을 통한 ‘생활예술’ 진흥, 문화사랑시 브랜드화 등의 담론 형성
- 예술경영학, 사회학, 도시계획, 예술교육, 각종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융합 연구를 통해 창조도시와 생활예술 관련 연구자들의 교류 지원
- 월 1회 연구모임 정례화
- 모임을 통한 각종 자료는 연구자료 발간을 통해 지식축적

(3) 연구자료 발간지원 프로그램

- 시민주도의 생활예술 진흥 및 예술 패러다임의 변화, 성남 문화정책 관련 연구에 대한 지속적 연구발간물 배포를 통해 성남의 발신기지와 목표
- 연구자료 브랜드화를 통한 연구자료 발간
 - ↳ 성남의 연구개발 체계를 통해 축적되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패러다임을 이끌고 선도할 수 있도록 함
 - ↳ 단계적으로 온라인에서 시작하여 온라인 연구저널, 열린 정책블로그 등의 운영을 한 뒤 향후 오프라인 책자 발간 등으로 발전시킴
 - ↳ ‘생활예술연구’, ‘문화사랑연구’ 등의 성남 비전과 통일된 브랜드 활용
- 연구자료 축적 및 리포팅
 - ↳ 대화모임, 연구모임, 워크숍, 심포지움 등을 통한 연구자료 제공 및 결과 공유
 - ↳ 온라인 매거진, 오프라인 책자, 자료집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퍼블리싱하여 공유 및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연구논문 지원: ‘생활예술’ 및 ‘아마추어 문화클럽’, ‘문화예술 창조도시’ 등의 성남 비전 관련 분야 연구 논문 지원을 통해 타도시와 차별화된 정책선도
- 단행본 발간 지원: ‘생활예술’에 관련된 이론 및 연구 단행본 발간 지원을 통해 선도적 연구의 핵심주체 역할 목표

(4) 연구센터 설립 지원 프로그램

- 새로운 문화예술 정책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이에 대한 연구자료, 정책개발, 사례 발굴, 교육자료 등의 연구사업을 지속화하기 위한 연구센터 설립
- 성남시 부설 생활예술 진흥을 위한 연구소 설립을 통해 연구체계를 지속하고 내부 연구조직과 외부 연구조직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함
- 연구모임, 연구네트워크 운영 : 성남내부의 연구활동 등을 전문화하고 이를 분리하여 연구센터를 통해 연구자료 발간, 연구모임 수행, 연구네트워크 운영업무를 수행함
- 2012년 설립을 목표로 2개년 내에 타당성 검토, 예산 수립 준비 연구

2) 문화비전 공유 사업

표 3-1 문화비전 공유사업

구분	대상	시민주도형	교육형	네트워크형	매체활용
성남 차원	성남 시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 비전 서포터즈 선발 '문화 사랑시' 홍보를 위한 캐치 프레이즈/포스터 공모전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을 위한 비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화모임/포럼 등의 교육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먼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 문화클럽간 네트워크를 통한 커뮤니티 홍보 '축제' 마당을 통한 홍보 	문화비전 브랜드 구축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토리텔링 및 홍보 이슈 개발 및 홍보물 제작 홍보사업 평가
	행정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방형 연구개발체계 활용 대화모임/연구모임 직접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방형 연구개발체계 활용 연구모임/대화모임 등의 연구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도시간 네트워크에서 비전 전파자로 역할 생활예술 관련 행정가 네트워크 활용한 홍보 	
국가 차원	일반 대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남시민 개인의 문화참여 이야기를 이슈로 발굴 성남 생활 예술인 스타 활용 성남 시민 참여 문화 활동 클럽을 홍보 이슈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방형 연구개발체계 활용 전국단위 포럼·활동가 포럼 등을 통한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도시 교류를 통한 휴먼 네트워크 홍보 문화활동가 네트워크 통한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전 홍보 마케팅 사업 메스미디어를 통한 비전 홍보 신문/방송, 온라인 등 매체별 비전 홍보 문화정책 블로그/매거진 운영 각종 연구 자료집 등을 통한 비전 공유
	타도시 (행정가/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남 시민 기사를 통한 비전홍보 시민이 비전 전파자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방형 연구개발체계 활용 문화정책 포럼 등을 통한 공유 연구자료집/논문/단행본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도시간 네트워크 생활예술·아마추어 예술 진흥을 위한 행정가 네트워크 활용 	
세계 차원	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문화클럽 포럼(WWCF)시민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문화클럽 포럼(WWCF)활용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적 아마추어 예술 클럽 네트워크 활용 국제적 생활예술/문화도시간 네트워크 활용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랑방 문화클럽 축제시 국민 문화제 참여팀 초청 일본 국민 문화제에 성남 문화 클럽팀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국민문화제/문화도시간 개방형 연구개발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국민문화제/문화도시간 자매결연 MOU 등을 통한 지속적 네트워크 마련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발적 시민을 비전전파자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방형 연구개발체계/및 교육 프로그램 활용한 비전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커뮤니티 기반의 비전 공유 	

2-1) 추진방향

(1) 시민주도형 공유체계

- '성남시 문화비전 홍보 서포터즈 선발' 등을 통해서 열정적이고 자발적인 시민을 선발하고 영향력 있는 주도층으로 개발하여 자발적 홍보인력 양성을 통해 자체적 홍보촉진 효과
- '홍보 슬로건 및 홍보 이미지 공모전' '문화사랑시' 홍보를 위한 '세부 모토 및 캐치프레이즈 공모전' 등에 시민과 문화클럽 단위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시민주체의 문화도시 특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을 적극적으로 홍보의 주체로 활용함
- 또한 홍보의 주요 이슈 및 소재를 성남시민 개인의 자발적 문화참여 이야기 및 성남 문화클럽 활동을 이슈화하여 성남시민에 의한 성남시민의 이야기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함

(2) 교육형 공유체계

- '시민을 위한 비전교육', '국내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지식공유의 장 포럼 ·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미디어 홍보활동이 아닌 교육이나 포럼 등의 장을 통해 직접적인 시민의 이해를 돕고자 함

(3) 네트워크형 공유체계

- 시민간 휴먼네트워크, 문화클럽간 커뮤니티 네트워크, 국내 문화도시간 네트워크, 행정이 및 문화활동가 중심의 네트워크를 비롯하여 국제 아마추어 예술 클럽간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비전을 공유함

2-2) 실행 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램	주요대상	사업내용
세계차원 비전공유체계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시민 * 세계 문화도시 * 세계 시민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발신기지화 사업 (WWCF, 일본 · 해외문화도시 결연)
국가차원 비전공유체계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대중(국민) * 타도시(문화공동체 · 행정가) * 문화정책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발신기지화 사업(워크숍, 자료집, 컨설팅 등) * 비전 홍보 · 마케팅 사업(매체별)
성남차원 비전공유체계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 행정가 * 시민 · 문화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시민참여, 홍보물, 축제홍보 * 연구개발체계 통한 홍보
문화비전 브랜드 구축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 국가 * 성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토리텔링 · 캠페인 이슈 계획 수립 * 홍보물 · 자료집 구축 및 제작

그림 3-7 문화비전 공유사업 실행프로그램

(1) 문화비전 브랜드 구축 프로그램

A. 스토리텔링 · 캠페인 이슈 계획 수립

- 1단계 3개년 정책사업 성과를 홍보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민주체가 형성되는 사업과정을 스토리텔링화
- '문화사랑시' 브랜드 및 프로젝트 브랜드를 홍보할 세부 슬로건이나 모토로 구성된 캠페인을 개발
- 시민과 문화클럽 활동자체를 스토리텔링화하고 이를 활용한 브랜딩
- 이를 위해 미디어별로 출판 및 방송용 스토리텔링 및 텍스트 개발, 온라인용 자료 개발 등을 구분하여 미디어 맞춤형 자료 개발
- 지속적 홍보이슈의 개발을 위해 '이달의 사랑방 문화클럽' '이달의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등을 마련하고 이를 클럽운영 등의 리워드로 활용
- 브랜드별 · 매체별 · 연도별 스토리의 핵심 주제 선정 및 확장 계획을 수립하고 성남 문화재단의 캐치프레이즈 등을 분류설정하여 단계별 홍보효과를 도출하고 브랜드화

B. 홍보물 · 자료집 구축 및 제작

- 스토리텔링에 따른 캐릭터, 콘텐츠, 내러티브 등 설정과 브랜드 아이덴티티(BI) 설정 보급
- 브랜드 이미지 제작 : 스토리에 따른 문화비전 브랜드 엠블렘 및 로고 제작 사진 · 이미지 선정, 브랜드 컬러, 캐릭터, 로고타입 등 제작
- 홍보 자료 제작 : 브로셔, 책자, 기념품 등의 기타홍보물 등 제작
- 동영상 자료 제작
성남의 문화비전 관련 영상(온라인홍보용 · 야외 홍보용 · 매스미디어 홍보용)
연구성과 및 프로젝트 성공사례 자료집 및 DVD 제작
- 프레스 키트 제작 : 성남 문화도시 비전홍보를 위한 Press Kit 마련, 다국어 버전용 홍보자료 제작 (국내 · 해외용)
- 연도별 업데이트된 통해 최신 자료를 통해 홍보 구사

C. 홍보성과 평가

- 비전공유에 대한 성과 파악 및 효과적인 미디어 선별을 위해 1년 단위 홍보 평가 실시
- 성남차원, 국가차원, 세계차원의 공유체계를 통합하는 공유사업 평가
- 비전메시지 확산 및 대내외적 공감여부, 시민차원의 의견, 효과적 미디어 활용의견 등을 수렴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는 홍보 지속화

(2) 성남 차원 비전 공유체계 구축 프로그램

A. '시민' - 도시내 다각적 홍보캠페인 실행

교육을 통한 홍보 : 시민을 위한 비전교육, 시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비전 교육 프로그램 마련

- 시민참여를 통한 홍보 : 시민이 비전선포자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참여기회의 마련, 시민참여형 슬로건, 이미지, 포스터 등 마련
- 지역내 홍보물 배포 : 문화공간, 주민센터, 은행, 교회 등 각종 편의시설 및 시민이 가장 가깝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전홍보용 브로셔, 이미지, 동영상 등 배포
- 대화모임, 포럼 등을 통한 홍보 : 문화재단 주최의 행사참여를 통한 홍보
- 축제를 통한 홍보 : 비전공유체계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랑방 문화클럽 축제, 세계 문화클럽포럼과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등이 한데 어우러진 통합 축제를 통해 체험하고 즐기고 만들면서 느끼는 비전공유의 장 마련

B. 행정가 - 연구개발체계를 통한 지속적 공유확산

- 개방형 연구개발 체계를 통한 비전공유를 위한 연구모임 등을 통해 문화비전 선편자로서의 교육을 지속함
- 타도시와의 행정차원에서는 비전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성남차원에는 비전을 실천하는 역할을 함
- 컨설팅 서비스 운영 : 타도시를 비롯한 문화활동가 등에게 생활예술 진흥 및 방법론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운영

(3) 국가 차원 비전 공유체계 구축 프로그램

A. 국내발신기지화 사업 %

표 3-2 국내 발신기지화 사업

구분	연계	세부내용
대화모임·포럼·워크숍 개최	연구개발 공유체계 (연구모임 사업 연계)	'생활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정책 대화모임
		국내 문화도시간 포럼 개최
		문화활동가 워크숍 개최
자료집·책자발간	연구개발 공유체계 (연구모임·컨설팅 사업 연계)	문화클럽 성공사례, 정책자료, 활동가용 교육 자료 발간
		문화클럽, 활동가, 행정가 등 네트워크 교류정보 자료집 발간
컨설팅·노하우전수		생활속 문화예술 클럽 진흥의 대표적 선도 도시로서의 성공사례 발표, 외부 컨설팅 지원

- 문화정책 대화모임, 각종 포럼, 문화활동가 워크숍 등의 교육형 공유체계를 통해 비전공유
- 자료집, 책자 발간 등의 연구개발공유체계의 연구자료 발간 사업과 연계하여 결과물 등을 통해 비전 공유
- 컨설팅 서비스 : 생활예술 진흥 정책, 아마추어 클럽 운영 등 성공사례 및 사업경험과 정책 사례를 통한 외부 컨설팅 지원을 공유

- 성남차원의 대화모임, 연구모임, 워크숍 개최 등의 연구체계와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국내발신기지화 사업으로 통합 운영함

B. 비전 홍보 · 마케팅 사업

표 3-3 비전 홍보 · 마케팅 사업

미디어	주요 홍보내용
신문	언론사(일간지 · 주간지 등)과의 연계를 통해 특집 기사 마련
방송	'사랑방 문화클럽' 등의 커뮤니티 및 문화 참여 대표시민을 시민 스타로 활용하여 미디어 홍보
온라인	성남의 정책블로그, 비전동영상 채널, 사랑방 문화클럽 이야기 등을 온라인 등의 선진 미디어로 활용함

- 지역주민 외에 국가적 차원에서 대중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내차원에서의 호응을 얻기 위해 신문 · 방송 등의 매스미디어 대상 홍보를 시도함
- 지역신문 특집기사 마련
- 방송 등과 연계한 성공사례 및 성남 문화비전 홍보
- 온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한 비전 지속적 퍼블리싱
 - ↳ 뉴스레터, 블로그, 소셜미디어, 동영상채널 등 온라인 미디어 마련
 - ↳ '문화사랑시 성남' 블로그, 트위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의 다양한 정책활동을 온라인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함
 - ↳ 블로그 뉴스, RSS, 오픈캐스트 등의 무료온라인 서비스 등을 통해 성남의 다양한 미디어 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시민기자단, 시민참여 홍보 슬로건 등 선발
 - ↳ 비전홍보를 위한 시민기자단, 시민이 직접 만든 캐치프레이즈 등을 통해 시민이 만드는 문화예술 도시를 홍보함

(4) 세계 차원 비전 공유체계 구축 프로그램

A. 해외발신기지화 사업 – 국제행사 진행

- 세계문화클럽포럼(WCCF) 활용을 통한 국제적 공유체계 마련
 - ↳ 매년 개최를 통해서 네트워크 확대
 - ↳ 언론방송 등과 향후 연계하여 홍보효과 극대화
- '생활예술' 글로벌 심포지엄 · 포럼을 통한 해외 공유 체계 마련

B. 일본 국민문화제 등 세계 문화도시와의 연대 마련 – 네트워크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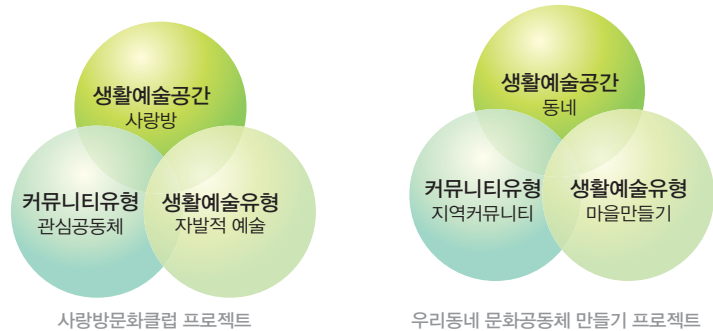
- 행정가간 공유 : 일본의 국민문화제와의 교류 및 문화도시 등과의 자매결연 MOU 등을 통한 지속적 네트워크 마련
- 예술가 · 시민간 공유 : 사랑방 문화클럽 축제시 국민문화제 참여팀 초청, 차년도 국민문화제 축제의 한국공연팀으로 참여
- 도시 · 축제간 자매결연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일본내 홍보 거점망 마련 및 연계 강화

IV 문화프로젝트 포지셔닝

Cultural Project's Positioning

-
1. 문화프로젝트 포지셔닝 방향
 2. 추진사업

1. 문화프로젝트 포지셔닝 방향



■ 그림 4-1 ■ 문화프로젝트 포지셔닝 방향성

본 장에서는 ‘프로젝트’ 차원의 포지셔닝에 대해 연구하고 이에 대한 실행프로그램을 도출한다. 프로젝트는 크게 두가지 사업으로 집중하고자 한다. 여기서의 ‘프로젝트’는 사업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사랑방 문화클럽’과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라는 두 가지 방향성을 갖는다. 기존의 5개년 계획에서의 사업에서 비전이 분리되고 나머지 다른 두 사업은 지원체계화되며 성남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사랑방 문화클럽 프로젝트’와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 두 개를 핵심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포지셔닝한다. 두 사업은 ‘생활예술지향’, ‘커뮤니티지향’, ‘사회공헌지향’이라는 3가지 방향성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구현하게 된다. 사랑방문화클럽은 관심을 거점으로 형성된 관심 커뮤니티로 ‘사랑방’이라는 문화공간을 통해 자기 삶에서 직접 예술을 창조해가는 것을 말한다. ‘우리 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우리 동네’ 거점으로 형성된 지역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다.

성남은 ‘사랑방 문화클럽’과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라는 2가지로 집중된 사업을 통해 정책적인 방향성을 추구한다. 다양한 사업들로 확대하는 것 보다는 두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것이 2단계 5개년 발전계획 과정에는 적절할 것이다. 사랑방과 마을만들기 사업은 닮은꼴처럼 서로 소통하는 상생모델이 적합하다. 여기서의 ‘사랑방’은 공간이름이기도 하고 관심공동체의 브랜드 이름으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랑방 문화클럽은 핵심적으로 자발적으로 생활예술을 하는 사람의 모임으로서 정체성을 갖는다. 즉, 관심을 거점으로 하는 자발적 예술축과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성남시의 48개 동의 축이 합쳐져 한다. 예를 들어 기존의 수진동 성당과 같은 사례는 클럽도 만들어지고 동네만들기 거점도 된 경우다.

2. 추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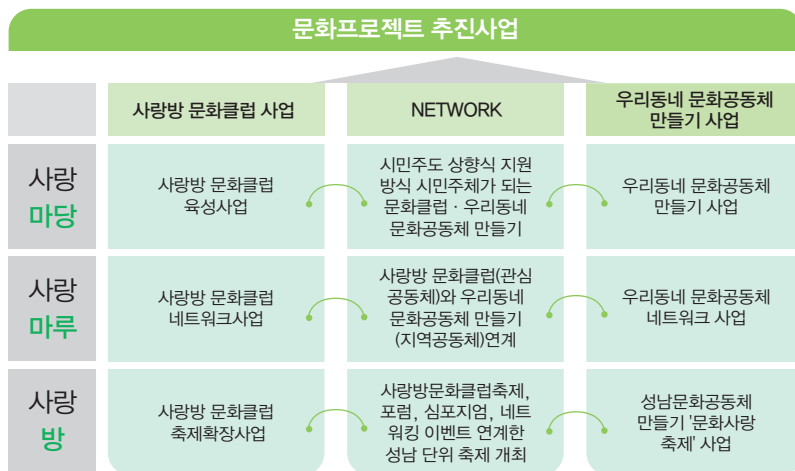


그림 4-2 문화프로젝트 추진사업

1) 사랑방 문화클럽 사업

1-1) 추진방향

(1) 시민주도 상향식 지원방식

- 문화클럽 등은 자발적으로 생겨난 관심 공동체이므로 공동체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시민의 역량으로 정책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상향식(Bottom-up) 지원방식 지향
- 생활예술을 실천하는 공간인 '사랑방'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자발적 예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며 관심 공동체인 '문화클럽'을 통해 시민이 스스로 예술에 참여하는 형태를 지향

(2) 다양한 지원체계를 통한 간접 지원 위주

- 문화클럽의 자율성장 기능을 도모하고 직접지원보다 간접지원을 위주로 하며 사랑방 공간증설 등의 공간 지원과 시민 스스로 리더십을 갖고 클럽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육성체계 등의 지원체계를 통해 클럽을 지원함

(3)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와의 연계

- 관심 거점의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와 지역거점의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네트워크는 '사랑마당'을 통해 만나고 교류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 단위 사업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상호 협조하는 모델 지향

1-2) 실행프로그램

표 4-1 사랑방문화클럽 실행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램	사랑방문화클럽 육성프로그램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프로그램	사랑방 문화클럽 축제 프로그램
단계	사랑방	사랑마루	사랑마당
목표	친목 · 학습	시민 자치	숙련 · 기여
관련분야	문화예술 교육	문화예술 경영	문화예술 관광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방육성 운영 지원 · 우수 사랑방 문화 클럽 시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위원회 지원 · 네트워크 · 교육 지원 · '우리동네 문화 공동체 만들기' 와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공헌 사업 · 축제공모 사업 · 우리동네 문화 공동체 만들기 축제 연계

(1) (사랑방) 단계 : 사랑방문화클럽 육성 프로그램

- 사랑방단계는 일반적인 시민과 아홉꾼이 참여하여 친목과 학습을 목표로 하여 사랑방 문화클럽의 자체적인 문화예술 클럽 활동을 육성함
- 지역별, 연령별, 구성원별 다양한 신생클럽 발굴 및 육성을 목표로 함
- 다양한 지원체계를 통한 체계적 육성 지원
 - ↳ 지속가능한 문화클럽 운영을 위해 직접 지원이 아닌 사랑방 등의 공간 지원 및 문화예술 함양 교육프로그램 등의 교육 지원 등 지원체계의 폭넓은 지원
- 지속가능한 운영 지원
 - ↳ 사랑방 문화클럽이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와 연계하고 동네에 뿌리내릴 수 있게 하며 축제 등을 통해 소통할 수 있도록 사랑방 문화클럽 자체 역량을 발전시키며 지속가능한 클럽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우수 사랑방 문화클럽 선발 및 시상 지원
 - ↳ 사랑방 문화클럽을 성남의 문화브랜드로 알리기 위해 우수 사랑방 비전공유의 일환으로 문화클럽을 선정 시상하고 이를 홍보함
 - ↳ 활동참여 정도, 활동 내역에 따라 정기적으로 선정하여 홍보기회 제공 및 시상 등의 보상체계를 통한 클럽 활성화 유도
 - ↳ 우수 사랑방 문화클럽 선발시에는 문화통화 등을 지급하여 활동장려를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공간활용 우선권, 축제 등의 발표 기회 등을 줌
 - ↳ 사랑방 문화클럽 축제 등의 연례 행사를 통해 1년간 우수 활동 시민, 우수 활동가, 우수 클럽 등을 선발함
 - ↳ 선발의 주체도 시민이 하도록 하여 칭찬릴레이 등의 형식을 띌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온라인, 사랑방, 우리 동네 등에 홍보함

(2) (사랑마루) 단계 :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프로그램

- '사랑마루' 단계로 나아가는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사업'은 사랑방이 모인 네트워크 활성화를 목표로 함
- 스스로 진화하고 조직화되는 새로운 조직 체계인 자발적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자발적으로 시민의 역량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
-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클럽 확대
 - ↳ 2010년 150개, 2011년 200개, 2012년 250개, 2013년 300개 확보 목표
- 사랑방 문화클럽 운영위원회 지원
 - ↳ 사랑방 클럽이 모인 네트워크를 이끌어가는 주체인 운영위원회 운영 인력 및 행정 지원
 - ↳ 문화클럽 운영에 관련된 실무 및 예술 경영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워크숍 등 지원
- 소통의 장 지원
 - ↳ 문화클럽 구성원들의 성장을 위해서 클럽간의 소통뿐만 아니라 예술가, 예술경영자, 예술행정이 등 전문가 그룹과의 소통이 가능한 구조 마련을 위해 대화모임 등을 추진하며 연구
- 교육프로그램 지원
 - ↳ 전문 예술창조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술경영과는 차별화되어 사랑방 문화클럽 등에서 활동하는 아마추어 예술 창조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예술경영 교육을 하여 사랑방 클럽 운영에 필요한 경영관련 리더십, 실무 교육 등으로 확대 지원
-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의 지역 공동체와 네트워크 지원
 - ↳ 관심공동체인 사랑방 문화클럽과 지역공동체인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가 만나면서 성남시 차원의 문화공동체 만들기를 실현

(3) (사랑마당) 단계 : 사랑방문화클럽 축제 프로그램

- '사랑마당' 단계는 사랑방 문화클럽과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가 만나는 단계로 '축제'를 통해 숙련되어지며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여를 목표로 함
- 축제 공모 사업 등을 통해 사랑방 문화클럽의 축제 참가자를 선정하고 지역의 축제는 문화예술 관광자원으로 알릴 수 있도록 브랜드화 하여 홍보함
- 문화공헌 사업 : 기존에 운영되어진 문화공헌 사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문화공헌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하며 축제를 통해 공헌 할 수 있도록 함
- 사랑방 문화클럽 축제 공모사업
 - ↳ '마당'이 되는 축제를 통해 커뮤니티 수준을 넘어서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발전에 직접적으로 참여
- 사랑마당은 문화클럽의 역량을 표출하는 장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공헌 활동이 수행되는 공간
- 사랑방 문화클럽 축제는 지역축제 및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축제와 연계하여 실행하며 타지역 문화공동체 등과 네트워킹하고 축제에 참여하면서 공동체 내부의 역량 발전

2)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2-1) 추진방향

(1) '동네만들기'를 넘어선 '성남만들기'

- 동네공동체에 머물렀던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는 문화클럽과 동네를 연결하여 지역의 문화공동체를 이루었으며 이는 성남시의 문화정체성을 만들
- 동네 만들기가 지속화 되면 동네를 넘어선 '성남만들기'가 되고 도시의 문화적 발전에 기여하게 되며 문화예술 창조도시로서의 비전을 실행

(2) 지속가능한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다각적 지원

- 1년 단위 사업으로 한정짓는 것이 아닌 동네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만들고 중장기적 비전과 지속성을 갖기 위한 지원폭 확대
- 우리동네 만의 자생력 확보 및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문화공동체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공유체계를 통한 연구지원을 비롯하여 참여 시민 및 활동가 등을 양성하기 위한 육성체계 지원, 문화통화 등을 통한 연계 자원 지원, 온라인 문화공간 등의 지원 등 체계적 지원 확보

(3) 축제를 통한 문화예술 창조도시 실현

- 사랑마당으로 갈수록 도시계획에 해당하는 창조도시로서의 비전에 가까워지게 되며 동네 차원이 아닌 '도시' 차원의 문화적 개발이 이루어짐
- '사랑마당'이 되는 축제를 통해 커뮤니티 수준을 넘어서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 '축제'는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으로서 기능하고 지역사회의 내재적 발전을 가져옴으로써 시민사회를 성숙시키는 계기가 됨

2-2) 실행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프로그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네트워크 프로그램	성남 문화공동체 만들기 프로그램
단계	사랑방	사랑마루	사랑마당
목표	동네 문화적 개발	시민 자치	도시의 문화적개발
관련분야	공공예술	문화예술 경영	문화예술 창조도시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네만들기 지원 센터 운영 • 공모지원 사랑방 문화클럽 결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위원회(사랑마루) 지원 • 전문가 매개지원 공동사업 운영 지원 협의체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남시단위 축제 연계 • 사랑방문화클럽 축제와 연계 • 심포지엄, 네트워킹 포함 통합 축제화

표 4-2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실행프로그램

(1) (사랑방) 단계 :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프로그램

-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지역 확대하여 최종 성남 45개 동으로 확대
 - ↳ 2010년 6개, 2011년 8개, 2012년 10개, 2013년 15개 확보 목표
-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 동네와 동네를 연결하는 통합 시스템 운영
- 마을 만들기 프로세스 및 운영 매뉴얼 개발
 - ↳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의 지속운영을 위한 운영 노하우 등을 전수할 수 있도록 운영 애로점, 유형별 특수사항, 사업 선정, 계획 및 결과 등의 운영 전과정을 담은 매뉴얼 제작 배포
- 시민 참여형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공모
 - ↳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의 주요 문화프로그램 등에 시민이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주도형 정책 방향을 유지
 - ↳ 새로운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전에 지역자체의 요구조사를 통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
- 탄천 지류 중심의 마을 만들기 진행
 - ↳ 향후 사랑마당에서 축제를 만들고 '탄천' 축제 등과 연계하기 위해 탄천지류 중심에 우리 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를 만들어 이를 연계
 - ↳ 그동안 수정구, 중랑구 위주로 진행되었던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를 지역적으로 확대하면서 탄천 쪽 개발
- 5개 유형(골목길형, 아파트형, 공단형, 상가형, 시장형) 발전 유지를 위한 유형별 결연 및 멘토링 지원
 - ↳ 공간 특성에 따른 5개 유형 분류를 유지하되 지역위치 및 공간 유형에 맞는 특화된 전략 구성을 유지함
 - ↳ 신규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중 같은 유형의 경우 먼저 개발된 우리동네에서 프로그램 기획 등을 지원하는 등의 멘토 역할을 통해 노하우를 전수함과 동시에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 각 유형간 자매결연을 통해 각 유형의 특성을 유지시키고 노하우 전수과정자체가 교육이 됨과 동시에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며 지역공동체의 자생력을 개발시킴
-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지원
 - ↳ 커뮤니티 아트 관련 전문 예술가 매개자 육성
 - ↳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를 진행하는 기획자 및 매개자를 시민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과 연계
 - ↳ 공공미술을 도입하여 진행하는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의 경우 지역 예술가의 참여가 핵심적이며 지역 예술가의 참여를 지속화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사랑방 문화클럽과의 결연 지원
 - ↳ 추진동 성당 사례와 같이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거점 공간안에서 사랑방 문화클럽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 이를 위해 사랑방 문화클럽 내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야 하며 새롭게 생겨나는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구축부터 사랑방 문화클럽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

(2) (사랑마루) 단계 :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네트워크 프로그램

- 사랑마루는 방과 마당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며 상호교류를 통하여 시민들의 문화 예술 커뮤니티 활동을 숙성시키는 역할을 수행
-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운영위원회인 '사랑마루'를 지원하고 이를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체제 마련
- 참여인력간 파트너십을 증진시키고 관계를 유지시키는 각종 지원 마련
- 사랑마루 지원 : 네트워크를 이끌어가는 주체인 운영위원회(사랑마루)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인력을 통한 행정 지원, 교육 지원
- 네트워크 확장 및 운영에 관한 연구지원
 - ↳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대상자 및 역할연구, 관련 협의체 구성을 위한 설치 및 조례 제정 등에 대한 연구를 비롯한 협의체 운영 매뉴얼, 세부 실행방안 등 도출
 - ↳ 연구자문 위원 등이 포함되어 정례회의 · 간담회 등을 통해 연구 실시
 - ↳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지역공동체로서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연구 실시
- 전문가 매개 지원
 - ↳ 우리동네 간,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구성원간, 재단과 동네공동체간, 민-관, 민-민 등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해결 및 조정자 역할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전문가 도입 필수
- 문화공헌 · 축제 등의 공동 사업 운영 지원
 - ↳ 토론회, 간담회, 정례모임 등의 대화지속사업을 비롯하여 교육프로그램, 연구 등을 네트워크의 공동사업으로 운영하여 공동체 의식 공유
- 성남내부 · 외부 통합 협의체 구축
 - ↳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전문가그룹(연구자, 행정가, 예술가), 시민, 시민단체 등 관련 협의체구성
 - ↳ 성남내부 협의체 마련 : 민관 협력 구조 마련
 - ↳ 성남외부 협의체 마련 : 국내외 지역 문화클럽, 문화관련 시민단체 등의 문화공동체 행정조직과의 네트워크 발족
-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네트워크 소식지 등 마련
 - ↳ 개별적으로 다른 유형의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를 상호협력하기 위해 네트워크 간 소통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소식지 마련하여 이야기 공유
 - ↳ 1년 단위로 진행되었던 프로젝트북의 연결 선상으로 우리동네 이야기가 네트워크 안에서 소통되면서 클럽간 협력을 도모함
 - ↳ 비전공유체계의 일환이자 온라인 지원공간의 미디어를 통해 이를 콘텐츠화하고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를 브랜드화

(3) (사랑마당) 단계 : 성남문화공동체 만들기 프로그램

- 기존에 진행되어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를 확대하고 네트워크가 만나는 장인 '축제'를 마련하여 문화를 통한 '성남만들기'를 실현 목표
-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과 사랑방 문화클럽이 만나는 '문화사랑 축제' 실시
 - ↳ 시민이 기획 준비과정부터 참여하는 일본의 '국민문화제'와 같은 형태를 통해 시민 밀착형 축제로 구성
 - ↳ 사랑방 문화클럽 축제와 연계하고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등이 참여하면서 색다른 축제로 정체성을 만들어감
 - ↳ 사랑방 문화클럽의 문화활동 발표의 장이 됨과 동시에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를 통해 형성된 지역공동체와의 만남의 장이 됨
 - ↳ 성남을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정례화하여 관광상품화
- 성남시에서 운영되는 시단위 지역축제연계 및 개최
 - ↳ 기존에 관위주로 진행되었던 '탄천 페스티벌' 등을 시민이 주체가 되는 성남시민의 생활예술 축제로 탈바꿈 함
 - ↳ 탄천 페스티벌 등 성남시 축제행사에 문화섹션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고 개별 브랜드화하여 연계함
 - ↳ '탄천'은 성남을 가로지르는 강으로 상징적인 관광자원으로 탄천페스티벌 등이 이루어졌으나 시민이 만들어가는 의미는 부족했음
 - ↳ 국내에서는 안양의 안양천페스티벌 사례, 프랑스의 루아르강 축제 사례 등 강이라는 관광자원과 축제라는 문화자원이 만나며 시민주체성을 특성화한 축제 사례를 만듦
- 타지역 문화공동체, 글로벌과 연계한 대표적인 생활예술 축제로 포지셔닝
 - ↳ 서울시내의 타지역의 문화공동체를 초청하고 세계문화클럽포럼(WCCF) 등을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일본이나 세계의 문화클럽 등을 초청
- 심포지엄, 포럼, 네트워킹 등을 축제와 연계하여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종합축제로 통합 브랜드 효과
 - ↳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심포지엄, 포럼 등을 축제기간 동안에 통합하여 시민, 행정가, 공동체,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거점 마련
 - ↳ 축제만이 가질 수 있는 한계를 교육,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성남단위 규모로 확장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음

The background of the entire page is a soft, painterly illustration. It depicts a vast field of small, light-colored flowers, possibly daisies or similar wildflowers, stretching towards a horizon. Above the field, numerous birds are shown in flight, their silhouettes and light-colored plumage blending into the pale, hazy sky. The overall color palette is muted and naturalistic, with soft greens, yellows, and greys, creating a serene and expansive atmosphere.

V

문화지원체계 포지셔닝

Cultural Support System's Positioning

-
1. 문화지원체계 포지셔닝 방향
 2. 추진사업

1. 문화지원체계 포지셔닝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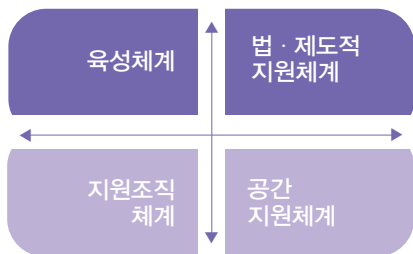


그림 5-1 문화지원체계 포지셔닝

본 장에서는 비전을 지지하고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한 ‘지원체계’에 관한 포지셔닝을 연구한다. 지원체계는 시민들의 문화예술창조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존과 달리 지원 육성체계와 법·제도적 지원체계, 지원조직 체계, 공간 지원체계의 4대 지향점을 갖는다.

지원시스템은 4개의 세부 지원시스템 프로세스 안에 시민주체의 육성체계는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며 지원조직에 있어서는 성남과 외부전문가조직을 어떻게 거버넌스할 것인지에 대해 전략을 구성할 것이다. 법제도에 있어서는 문화 통화 사업을 성남의 문화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통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또한 실제하고 있는 사업에 문화통화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지원공간은 사랑방 거점들이 현재보다 많아지기 위한 노력으로 오프라인 거점의 확대를 비롯하여 온라인 공간의 활성화를 통한 고도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

1) 육성체계

성남시민을 위한 성남문화재단의 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와 ‘인문학 강좌’로 나눌 수 있다. 아카데미는 감상과 실기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촉진하는 평생교육기관이다. 학기제(6개월 단위)로 운영되며 유료 프로그램으로 정기 강좌는 10~22회로 진행된다. 구성은 음악, 미술·사진, 무용 아카데미와 영어 뮤지컬 강좌 등의 교양아카데미, 어린이아카데미, 단기·방학 특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다. ‘인문학 강좌’는 2008년 여름·가을 학기와 2009년 가을 학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철학, 문학, 예술사학, 사회학 등의 강의가 무료로 제공되었다. 특히 2009년에는 ‘2009 커뮤니티 인문학 - 삶을 바꾸는 예술 : 공동체와 예술’이라는 주제로 ‘지역사회 커뮤니티 리더 및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아카데미와 인문학 강좌는 시민이 특성화된 역량 육성을 목표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화정책 사업이 진화함에 따라서 참여하는 시민들의 역할이 점점 세분화되고 확대되고 있다. 성남의 문화비전에 공감하면서 문화프로젝트 실행시 요구되는 시민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체계화된 시민육성 프로그램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 성남 문화정책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예술에 참여하면서 예술가, 예술매개자(기획자, 교육자), 혁신자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사랑방 문화클럽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은 생활예술가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 과정의 시민상을 ‘시민-아름꾼-춤아름꾼-훈아름꾼’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사랑방 문화클럽의 발전 과정이 사랑방 단계에서 친목과 배움클럽으로, 사랑마루 단계에서 숙련클럽으로, 사랑마당 단계에서 공헌클럽으로 진행되면서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역할이 변화하는 모습을 담은 것이다. 아름꾼은 아름다운의 접두어 ‘아름’과 ‘꾼’의 접

두어로 생활예술을 즐기는 문화시민을 지칭한다. ‘춤아름꾼’에서 ‘춤’이란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뜻하므로 ‘춤아름꾼’은 숙련된 예술기량을 가진 생활예술가를 뜻한다. ‘훈아름꾼’에서 ‘훈’이란 ‘크다’, ‘같다’는 의미가 있어 ‘훈아름꾼’은 춤아름꾼이 개인의 숙련된 예술기량을 바탕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단계로 나아간 것을 말한다²⁹⁾.

사랑방 문화클럽과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에서는 사랑마루에서 시민자치의 네트워크 활동이 진행되는데 이때 시민에게 생활예술매개자의 역할이 요구된다. 생활예술매개자의 역할은 생활예술기획자와 생활예술교육자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문화비전과 사업에 대한 이해,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조직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획자로서의 능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경우 지역예술가들이 기획자가 되어서 주민들을 조직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단계가 먼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기획자 역량강화가 시급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³⁰⁾. 생활예술교육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예술기량과 관련 지식을 나누어주는 시민을 말한다. 사랑방 문화클럽 사업에서는 춤아름꾼 이상의 시민 중 다른 시민들에게 자신의 예술 기량을 교육하고 나누고자 하는 경우가 해당하고,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에서는 사업 안에서 진행되는 교육 사업에 강사로서 참여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생활예술기획자와 교육자의 역할은 전문적인 별도의 역량이 요구되며 실행을 통해서 해당 역할의 숙련도와 사회공헌도가 점점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생활예술매개자도 ‘생활예술기획자, 생활예술교육자’와 ‘춤생활예술기획자, 춤 생활예술교육자’, ‘훈 생활예술기획자, 훈 생활예술기획자’로 성장단계를 제시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프로젝트의 사랑방-사랑마루-사랑마당의 과정과 함께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으며, 시민들의 성장과정에 맞는 육성체계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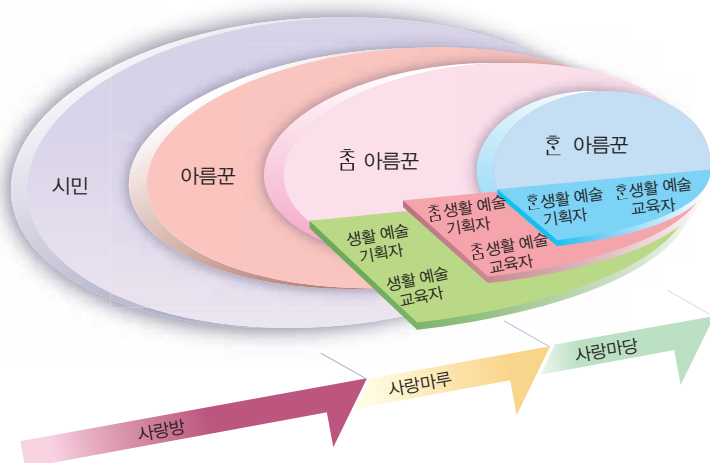


그림 5-2 생활예술가와 생활예술매개자의 성장과정

29) 전수환. 2008. 실행공동체를 통한 자발적 예술의 육성-성남문화재단 사례. 『예술경영연구』제13집. 예술경영학회. ; 성남문화재단. 2006. 『사랑방 문화클럽 발전방향 연구』. 성남문화재단.

30) 2009년 12월 3일에 진행된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워크숍〉 인터뷰 내용에서 참고.

지금까지 육성체계에서는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서였다. 하지만 일방향적인 아카데미 만으로는 예술 패러다임을 이끄는 시민 육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기존의 인문학 강좌 등의 성공적 프로그램 운영이 있었지만 사랑방 문화클럽이나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등과 같은 프로젝트와의 연계 학습체계는 미흡하였다. 자발적 문화예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실행을 통해서 느끼는 것을 소통시키는 새로운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새로운 교육의 방법론으로 액션 러닝을 도입하고자 한다. 액션러닝은 기업에서 팀 단위에서 자생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현장 맥락 기반의 교육을 하며 쌍방향성을 지향한다. 문화강좌 프로그램과 더해 현장 문제해결 방식과 관련된 교육을 넣어 참여할수록 문화기획자, 생활 예술가로 성장하는 체계를 만들어 냄으로써 육성 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2) 법 · 제도적 지원체계

문화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법 제도와 문화통화 시스템이 그것이다. 현재 성남시 문화체육복지국의 조례 및 시행규칙 중에서 문화예술 관련조례는 총 19개이다.

표 5-1 성남시 문화체육복지국 조례 및 시행규칙 현황 (2009년 기준)

문화체육복지국	조례명
조례 및 시행규칙	• 성남시 문화상 조례
	• 성남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 성남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 성남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성남시 문화예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성남시 문화예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성남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남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남시 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성남시 시민현장 조례
	• 성남시 시사편찬 위원회 조례
	• 성남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
	• 성남시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 성남시 지명위원회 조례
	• 성남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하지만 성남이 다양한 시민 주도형 문화정책을 시도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는 조례 등은 부족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정책을 실현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나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가 없었다. 조례의 필요성은 2006년 '기본계획' 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기본계획'에서는 '문화예술창조도시조례' 제정을 제안하고 총 3장 15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시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서 시민 중심의 문화정책 원칙을 수립하고 사회 및 문화체계의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거버넌스 협력을 촉진하며 문화관련 정책체계 간의 통합 및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2008년 '5대 정책 연계 발전방안'에서도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창작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성남시의 문화공간과 문화공간이 아닌 공공시설 또는 공간들이 개방 시간 및 조건을 유연하게 하여 시민들의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수용하도록 시 차원에서 통합적인 운영관리 조례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향후 사랑방 등 생활예술 지원공간의 원활한 확보와 주요 문화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관련 조례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문화정책 사업이 진화하고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로 인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요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대비한 시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보장 및 창작활동의 활성화를 문화정책의 기본 목표중 하나로 잡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정책 기본 방향 및 추진체계 등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시의 문화공간들이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 활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설 사용 시간의 확대 및 공공 공간의 개방 조건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하여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 및 공간들이 시 차원에서 문화예술 정책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합적 운영관리 조례가 필요하다. 조례 제정은 성남시 문화정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문화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삶 속에서 문화가치를 제고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생활예술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우선적으로 시민 중심의 문화정책 원칙을 확립하여야 한다. 또한 조례 규정의 의미를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의미체계를 확대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와 수평적 거버넌스 협력을 촉진하고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 주체들의 역할 정립 및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제도적 지원체계의 하나인 문화통화의 경우 2009년 현재 성남문화통화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회원은 386명, 클럽회원은 68개, 기관회원은 9개이다. 이중에서 개인회원의 90%이상이 사랑방 문화클럽 회원이며, 클럽회원은 100% 사랑방 문화클럽으로 구성된다. 기관회원 역시 7개는 사랑방 공간이고 2개만 일반 기관인데, 일반 기관은 국군수도병원과 호스피스센터이다. 2008년 조사결과에서 문화통화거래의 내용을 보면 공간이용이 매주 평균 3회로 가장 높고, 교육 품앗이기 매주 평균 2회로, 공연 및 전시 품앗이가 매월 평균 1.5회, 티켓거래가 매월평균 0.5회, 문화장터 이용이 매년 2회의 순으로 나타난다. 공간이용의 경우 문화클럽의 연습공간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문화통화제도의 취지와 지향점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은 82.2%(매우 긍정 50%)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통화가 문화예술활동에

31) 유상진, 2009. 나누면 배가 되는 문화생활의 즐거움 : 성남문화통화, 문화통화 지역사회 연계 발전방안 세미나 자료집, 성남문화재단.

32) 성남문화재단, 2007. 성남문화재단에서 활용가능한 문화통화제 모델제안 및 실행전략 연구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의견은 42.8%로 나타났다³¹⁾. 이는 문화통화를 활발히 사용할 수요가 충분히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체계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화통화는 사랑방-동네-도시 유형의 3단계 발전계획³²⁾을 가지고 있는데, '2단계 5개년 발전계획'에 따르면 2009년에는 사랑방 유형을 확산하고 동네 유형의 실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문화통화 거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문화품목 외에 일상생활 품목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문화통화 사용자 및 일반 시민들의 요구조사 외에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다.

문화클럽은 시민이 문화를 즐기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에게 알리고 활성화 시키기 위한 것이고 문화 통화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문화통화 사업의 특징상 시민이 하기에는 역부족인 부분이 있으며 재단과의 협조체제가 필수적인 사업특성을 갖는다. 문화통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직구성 자체도 시민이 주가 아닌 재단과 시민, 전문연구인력간의 3단계 협력체제가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재단차원에서의 문화통화 담당 인력 충원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연구진들과 자료와 정보가 공유되어야 하며 실행 단계에서 간극을 좁혀나가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온/오프라인 소통공간 등이 만들어져 사업진행에 관한 것들이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재단-연구-운영진 공유체제를 통해서 예산안 계획에서부터 프로젝트 실행과정까지 소통이 증진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이론과 계획을 통해서 각 계층에 따른 통화 방식을 연구해야한다.

3) 공간 지원체계

생활 속 문화클럽의 만남이 일어나는 공간인 사랑방을 공공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성남문화재단은 2007년에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문화공간자원을 조사, 발굴하였다.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는 성남 내 160여개의 활용 가능한 문화공간을 확인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였다. 성남문화재단은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시험적으로 몇 곳의 사랑방 문화공간을 지정하여 사랑방 문화클럽들의 활동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지원체계로서 공간은 사랑방문화클럽의 프로젝트 및 연구개발 체계 등이 발전되면서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문화정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그 동안 온라인 공간 운영이 미흡하였으며 지역별 거점 지원공간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온라인 웹사이트는 최근 들어 소셜 미디어 등이 온라인에서 활발한 것에 비해 사랑방 등에서 활용이 미흡했다. 온라인은 전문적인 운영인력 등이 필요하며 오프라인의 거점공간과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 온라인 소통도 활성화하여야 한다. 또한 오프라인의 사랑방 지원 공간도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공간지원 체계는 지역에서 시민이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거점을 내실화 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생활문화예술센터의 경우 명확한 모델 수립이 중요하다. 즉, 생활예술공간의 상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어야 하며 상대원 시장 사례처럼 공간과 생활예술매개자를 육성하는 시스템이 같이 상승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간의 확충은 유희공간 등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공간의 발굴도 중요하다. 교회나 공공기관의 장소 등 공적 공간과의 연결이 중요하며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지역안으로 들어가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점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공간확충은 도시계획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지원조직 체계

‘사랑방 문화클럽’ 및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등의 프로젝트 및 다양한 문화정책 모임 등은 그동안 재단내 문화기획부에서 주관하여 진행되었다. 그동안 성남문화재단은 시민주도의 문화클럽 육성 등 새로운 문화정책 흐름을 이끌어가면서 선도적인 지역 문화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해왔지만 인력부족과 행정중심 운영 등으로 인해 조직의 발전은 미비했다. 새로운 2단계 5개년을 준비 지원하고 새롭게 제시되는 문화비전 포지셔닝에 따른 실행프로그램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충원 및 전문부서 신설 등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사업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전, 프로젝트,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담당 인력의 충원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행정지원의 경우도 인력당 사업 2개를 담당하는 등으로 전문화되지 못했으며 행정중심으로 한계가 있었다. 비전-프로젝트-지원체계에 이르는 3차원 비전 포지셔닝을 지원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부서를 기획하고 사업의 특징에 따른 전문 인력 등을 충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기존 문화기획부 인력이 5명에 이르던 것을 총괄(1), 비전(1), 프로젝트(3), 지원체계(5) 등으로 10명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원조직에 있어 행정과 전문가 시민간의 협치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행정과 시민 간 매개자로서 전문가가 필요하며 거버넌스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재단과 사랑방 문화클럽간의 대표들이 만나는 등의 네트워크나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등에서 시도된 운영위원회, 대화모임 등을 통해 일부 이런 시도들이 있었으나 정례화되지 못했으며 충분히 내재화되지 못했다. 이러한 협치체계 구성시 시민을 육성할 때 자발성을 해치면 안 되므로 세밀하게 디자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거버넌스 및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전제 되어야 한다.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큰 타이틀에서 비전화 되어야 하며 지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낸 상태에서 작동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접촉하고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구체성이 필요하다. 재단차원의 노력들이 보다 실천력을 갖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형성이 중요하며 이는 육성체계와도 연계되어 시너지를 내야 한다. 이러한 거버넌스는 시민 주체로 이루어지는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를 통해 행정-전문가-시민간의 상호간의 파트너십을 확장하며 발전해야 한다.

성남문화재단이 2단계에서 제시되는 포지셔닝 전략과 실행방안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시민주체의 문화예술 창조도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지원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 문화비전, 문화프로젝트, 문화지원체계에 필요한 인적자원과 재정자원, 행정자원 등을 연결하는 허브로서 성남문화재단의 조직구성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성남문화재단이 2단계에서 제시되는 포지셔닝 전략과 실행방안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시민주체의 문화예술 창조도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지원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 문화비전, 문화프로젝트, 문화지원체계에 필요한 인적자원과 재정자원, 행정자원 등을 연결하는 허브로서 성남문화재단의 조직구성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2. 추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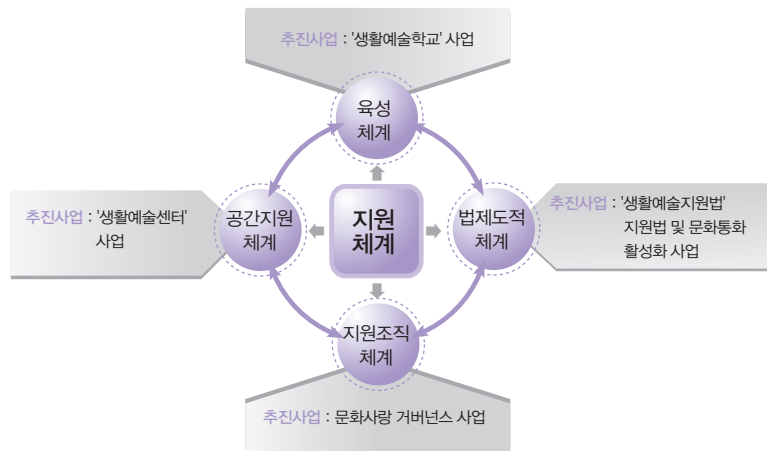


그림 5-3 지원체계 추진사업

1) 육성체계 : 생활예술학교 사업

1-1) 추진방향

(1) 생활예술가, 생활예술기획자, 생활예술교육자 군으로 교육대상자 구분

- 생활예술가와 생활예술기획자, 생활예술교육자에게 요구되는 역량내용과 각 역할의 발전 수준에 맞는 역량수준을 분석하여 역량 맵을 구성함
- 역량 맵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시민으로서의 성장모델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의 기초를 마련함

(2) 실행과 현장 중심의 교육운영

- 시민들이 학습한 내용을 실제 사업 참여 및 운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주의(Constructivism) 관점의 커리큘럼과 교육방법을 개발함
- ↳ 구성주의 관점에서 지식이란 개인이 속한 사회의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환경에서 개인적인 사고과정을 통해서 현상을 이해하고 새롭게 구성하여 생성되는 것임³³⁾
- ↳ 따라서 구성주의 관점의 교육과정에서 학습주체는 교수자가 아닌 학습자가 되어야 하고, 학습내용은 절대적인 지식이 아니라 상대적이고 다양한 지식이 되어야 하며, 학습방법은 학습자가 속해있는 '구체적인 맥락'과 관련되어 진행되어야 함³⁴⁾
- 사업에 참여하면서 발굴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액션러닝(Action Learning)과 실행공동체(Communities of Practice)를 통한 학습조직을 운영함
- ↳ 액션러닝은 실제 문제해결 과정에서 학습이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행과 학습을 분리하지 않고 문제와 관련된 담당자가 직접 문제해결에 참여할 것을 유도하며, 해결방법의 적용 과정과 결과에 대한 성찰을 강조함. 일상적이고 장기적인 수행을 통해 학습과 성장이 일어나며 성찰과정에서 회의운영, 경청, 질문, 칭찬, 아이디어 도출 및 정리, 발표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음³⁵⁾
- ↳ 실행공동체는 사람들이 사업실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심주제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그룹을 형성하고 관련지식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며 경영분야에서는 조직 내에서 전략적으로 실행공동체를 형성·지원함으로써 성과를 높임³⁶⁾

(3) 네트워크형 운영체제 조직

- 실행 중심의 학습자 주체 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직접 교육 커리큘럼을 제안하고 이를 지원하는 협력체계가 구성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 교육 대상자별 생활예술학습자모임과 성남문화재단의 담당 부서, 관련 전문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협의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커리큘럼 강화를 위해 외부 관련 육성기관(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및 전문가와의 협력을 맺을 수 있음

1-2) 실행프로그램

(1) 교육대상자 역량 분석 및 커리큘럼 개발 연구 프로그램

- 문화비전 연구개발 체계에서 마련된 개방형 혁신 연구 체계를 활용하여 교육대상자 역량을 분석하고,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대상자 맞춤형 커리큘럼과 교육방법을 개발함
- ↳ 연구자 그룹형성 : 교육공학, 예술경영, 예술교육, 예술행정 관련 연구자
- ↳ 조사방법 : 설문조사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 유사 기관의 커리큘럼 사례비교
- ↳ 조사내용 : 성남의 시민대상 교육프로그램 요구조사 및 사업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 발굴, 향후 시민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조사
- ↳ 조사대상 : 문화프로젝트의 2개 사업 참여자(시민-생활예술가, 생활예술기획자, 생활예술교육자로 구분, 관련 실무자), 기존 아카데미와 인문학 강좌 수강자, 외부 관련기관 종사자 및 전문가

33) 강인애. 1995. 구성주의 원리 : 초교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공학연구. 11(1).

34)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2008. 문화예술 기획경영 아카데미 커리큘럼 및 운영방안 개발 연구·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35) 김미정, 유영만. 2003. 액션러닝과 조직변화. 교육과 학사.

36) 전수환. 2008. 실행공동체를 통한 자발적 예술의 육성-성남문화재단 사례. 예술경영연구. 제13집. 예술경영학회.



그림 5-4 공간에 따른 교육운영방식³⁸⁾

37)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2008, 문화예술 기획경영 아카데미 커리큘럼 및 운영방안 개발 연구·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38)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2008, 문화예술 기획경영 아카데미 커리큘럼 및 운영방안 개발 연구·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 연구를 통해 시민주체의 성장모델 및 육성체계를 제안하여 문화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개인 성장의 비전과 사업성장의 비전을 동시에 제시하고자 함

(2) 다양한 교육 운영방식의 시범 운영 프로그램

- 교육 운영공간에 따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고 각각에서 다룰 수 있는 교육내용의 유형을 지식습득(Knowledge Learning)과 학습자 주체의 실행 학습(Action Learning)으로 분류하여³⁷⁾ 학습자 대상 및 커리큘럼에 따라서 시범 운영함

- 온라인은 온라인에서는 강의수강과 지식공유를 통한 지식습득, 과제제출과 피드백, 협업 등을 통해서 실행학습을 진행할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는 강의와 토론을 통한 지식습득, 실습 공동작업과 세미나, 워크숍을 통한 실행학습이 가능함

↳ 8 가지 교육방법을 커리큘럼에 따라서 적절히 혼용할 수 있음

↳ 온라인은 현재 사랑방 문화클럽 사이트나 외부 사이트를 활용한 온라인 클럽의 동영상 플레이 기능과 커뮤니티 기능을 사용해서 운영가능하며, 향후 온라인 지원공간인 '문화사랑시 성남 2.0'과 연계하여 활성화시킬 수 있음

↳ 오프라인은 현재 사랑방 공간과 성남아트센터내 공간, 지역 유희 공간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향후 오프라인 지원공간인 '생활예술센터'에서 집중 운영할 수 있음

(3) 문화프로젝트 내 학습조직 운영 및 시범 커리큘럼 운영 프로그램

- 역량 및 커리큘럼 개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랑방 문화클럽 사업과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안에 자발적인 학습조직을 시범운영하고, 전문가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개선 방향을 도출함
- 학습조직 중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문화통화 넘실을 부상으로 지급함으로써 학습지속의 동기를 유발하고 함
- 시범운영 과정과 결과를 사례집으로 자료화하고 지역 및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육성체제와 커리큘럼을 확산시킴

(4) 생활예술학교 설립 및 운영 프로그램

- 시범운영을 통해 개발된 교육운영체제와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생활예술학교'를 설립함

↳ 이를 위해서 '생활예술지원법 제정' 등의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생활예술학교는 온/오프라인 교육방식을 병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건물을 설립하지 않고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 대학처럼 온라인 사이트와 지역의 생활예술센터를 활용하여 운영함

- 네트워크형 조직 운영체제로서 시민과 문화재단,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생활 예술학교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외부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를 실시함
- ↳ 생활예술시민학습자모임과 성남문화재단의 담당 부서, 관련 전문위원회의 협의체로 구성함
- ↳ 생활예술시민학습자모임은 문화프로젝트별(사랑방 문화클럽 사업,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교육대상자별(생활예술가, 생활예술기획자, 생활예술교육자), 문화통화 넘실 운영위원 등으로 구성될 수 있음
- ↳ 전문위원회는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연구진과 문화프로젝트 관련 실행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수 있음
- ↳ 외부 협력기관으로는 교육대상자별 커리큘럼을 위해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협력이 가능하며, 교육내용에 따라 관련연구소와의 협력이 가능함. 연구소와의 협력은 '2009 인문학 강좌'에서 고려대응용문화연구소, 한국학중앙연구원 고전학연구소와의 협력 사례가 있음
- 6개월 단위의 학기제를 실시하되 한 기수의 커리큘럼은 문화프로젝트 기간과 같이 1년 단위로 운영함. 졸업자에게는 '생활예술학교 졸업장'을 수여하고 교육대상자의 수준별 과정에 따라서 문화통화 넘실과 지속적인 재교육 기회를 제공함

2) 법·제도적 지원체계 : 생활예술지원법 및 문화통화 활성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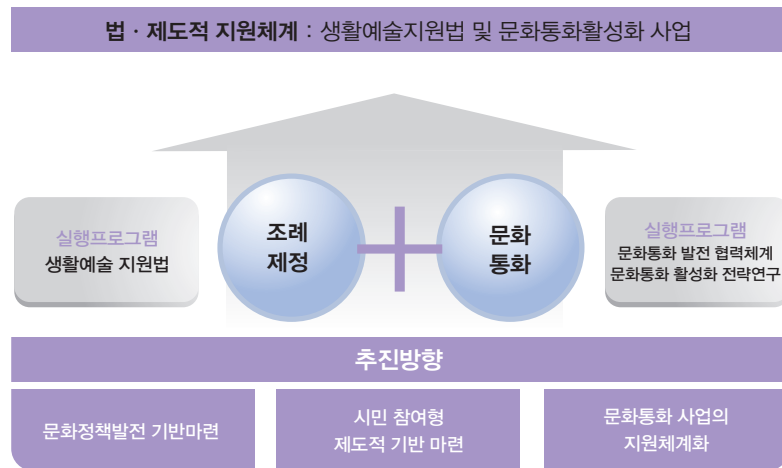


그림 5-5 법·제도적 지원체계 : 생활예술지원법 및 문화통화 활성화 사업

2-1) 추진방향

(1) 조례제정을 통한 문화정책 발전기반 마련

- 성남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도 없는 상황으로 제도적 근거가 없는 관계로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되어지는 상황을 극복하고자 함
- 성남시를 시민이 만드는 문화예술 창조도시로 추진하고 문화사랑시로 브랜딩화함과 동시에 정책규범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문화발전의 토양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조례 제정 등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2) 시민이 참여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예술 창조도시라는 전제하에 조례 제정 준비 등의 과정에서 시민을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시민참여 조례 제정의 목표를 이뤄냄
- 시민의 공감을 이끌어 위한 토론회를 비롯하여 추진 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시민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함

(3) 문화통화사업의 지원체계화

- 1단계 3개년 사업에서 5대 중점 사업의 일환인 '문화통화'는 문화통화시스템으로서 '사랑방 문화클럽' 등의 세부 프로젝트에 활용되었으며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등으로 확대되면서 단위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함
- 문화통화 시스템은 향후 '도시'차원으로 확대되면서 성남을 지원하는 통화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함에 따라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조례제정 등의 제도적 기반 조성을 하는 지원체계로 간주함

2-2) 실행프로그램

(1) '생활예술지원법' 조례제정 시안 및 준비 프로그램

-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보장 및 창작활동의 활성화를 문화정책의 기본 목표중 하나로 잡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정책 기본 방향 및 추진체계 등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 필요
- 생활예술 진흥 및 정책적 보안을 아우른 조례를 '생활예술 지원법' 등으로 명명하고 이를 준비함
- 성남의 문화비전 확산을 지속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실체적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전문 조직 구성 및 연구과정을 통해 체계적 준비 필요
- 조례제정 실무추진위원회 구성 : 조례제정 시안을 도출하기 위해 정책전문가-법률전문가-시민 및 시민활동가간의 전문 조직체를 구성하고 타당성 검토 등을 연구하며 실질적 시안 등을 도출

-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 :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의 공감대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 등 개최
- 조례 제정 시안 구성 : 성남시의 문화비전 및 세부 문화사업 운영을 위한 제도 근거 내용을 총체적으로 구성
- 성남시와의 지속적 네트워크 : 조례제정 발의를 위한 성남시 관련 행정가, 시의원 등과의 대화모임 등의 네트워크 지속

(2) 문화통화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프로그램

- 문화통화의 사용을 동네모델을 거쳐 도시모델로 확대하기 위해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등의 문화재단의 단위 사업과 연계하고 협력사업 등을 추진
- 재단 협력 : 문화통화시스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재단내의 전담인력 배치를 하여 행정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함
- 시단위 협력: 3단계 도시 모델 실행을 위한 시단위 제도적 협력을 위한 장치 마련
- 지역 협력 :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 다각적 협력체계를 통해 문화통화의 활용방안 확대
- 프로젝트 협력(동네만들기와 연계) :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등에 문화통화를 실행시키며 개별 동네로 확산시키는 문화통화의 동네 모델 실행 방안 도출

(3) 문화통화 활성화 전략 연구 프로그램

- 문화통화 시스템을 지역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중장기적 전략 및 문화통화 단계별 세부 실행방안 도출 필요성
- 재단-시민-전문연구인력간 3단계 연구체계 구축 : 기존에 성남 시민 주체로 하던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략연구 등을 하는 연구조직 마련
- 사랑방 모델 - 동네 모델 - 도시 모델이 결합된 성남문화통화 시스템 완결체계 정립을 위한 운영방안 도출
- 제도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발전 모델 도출

3) 공간 지원체계 : 생활예술센터 사업

3-1) 오프라인 공간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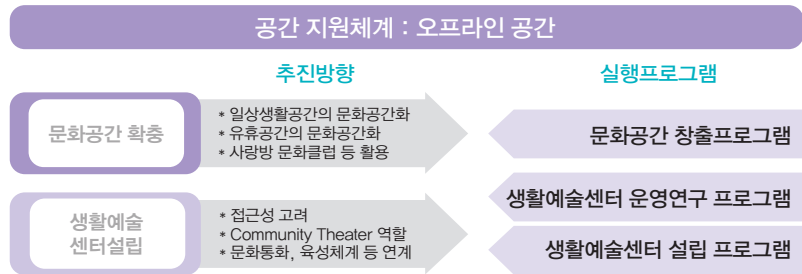


그림 5-6 오프라인 공간 추진방향

(1) 일상생활공간의 문화공간화

- 시민들은 자신이 직접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아마추어 예술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도시 내 일상공간을 문화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방향성이 필요
- 문화공간 중 사랑방활동을 위해서 공유하려는 의지를 지닌 공공 기관, 민간 기관, 기업, 아파트 단지, 개인 작업실, 교회들을 대상으로 사랑방 문화공간 확대
- 일상속에서 문화활동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을 통해 시민의 문화참여 향상

(2) 접근성을 기반으로 하는 공간인프라 확충

- 시민이 가장 가깝게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기반으로 하는 시의 공간 인프라를 적극 활용
- 새롭게 만들어지는 공간이 아닌 기존의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민생활권내 위치하여 이용하기 편리한 접근성을 갖추어야 함
- 시설 규모 보다 생활속 예술 증진이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할 수 있고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 활동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접근성이 제고되어야 함

(3) 프로젝트, 문화통화, 지원조직 등과의 연계

- 새로운 문화공간은 사랑방 문화클럽의 활동공간으로 활용되어지며 기존의 유휴공간 문화공간으로 확보될 경우 문화통화를 활용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게 되며 시민운영위원회 등의 거버넌스 센터 등이 운영지원을 하는 등 지원체계와 다각적으로 연계되어 활용

3-2) 오프라인 공간 실행프로그램

(1) 문화공간 창출 프로그램

- 시민들의 왕래가 잦으며 접근성이 뛰어난 지하철 역사 등의 새로운 문화공간 창출
- 성남시 유휴공간 실태조사를 통해 유휴공간 예술공간 활용
- 일상생활공간 대상 : 기관공간(주민자치센터, 시청 등의 공공기관), 기업공간, 종교공간(교회 등), 생활공간(아파트 단지), 다양한문화공간(도서관, 개인 작업실, 문화단체 공간), 지하철역사, 공원, 시장 등으로 확대
- 문화공간의 활용 : 시민 문화예술 창작 활동, 문화클럽의 활동공간인 사랑방으로의 활용,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등 육성체계 실현 공간으로의 활용, 예술 발표 등을 하는 공간 등으로 활용
- 문화공간의 운영 : 시민이 시설활용을 진행하고 운영역시 시민 의견 수렴하여 진행하며 시민 주도의 공간운영은 지역문화진흥 및 지역사회 활성화
- 문화공간을 통한 인력창출 : 인력창출등의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지역문화 공간 선정 이후 혜택 마련 : 온라인 지원공간 등을 통한 홍보지원, 문화통화지원, 문화사랑시의 문화공간 선정 후 문화공간 마크 등의 지원

(2) 생활예술센터 운영연구 프로그램

- 공간규모, 접근 거리, 공간 특성에 따라 다른 문화공간별 운영방안 및 사랑방 문화클럽 등의 프로젝트, 지원조직, 육성체계 등의 연계방법 등 통합 연구를 통해 공간 운영 방안 도출
- 커뮤니티 극장(Community Theater)의 역할이자 사랑방 문화클럽 등의 거점 역할을 하는 시민생활 예술 센터의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 연구내용 : 운영인력, 운영방법, 단계별 운영전략, 사업과의 연계 등에 대한 내용 도출

(3) 생활예술센터 설립 프로그램

- 시민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랑방 문화클럽 등의 문화클럽 활동과 문화활동 연습 및 발표, 축제, 교육, 등을 통해 예술과 시민을 연결하는 공간으로 역할
- 시민생활예술센터라는 매개공간을 통해 사랑방 문화클럽의 커뮤니티간 교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시민생활예술센터 설립의 기본 방향은 기존 공간의 활용, 마을 극장 정도의 소규모성, 시민생활권내 위치라는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 함
- 시민생활예술센터의 운영역할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재원조성 및 설립근거 등에 대한 조례 마련 등을 우선하여 설립함

3-3) 온라인 공간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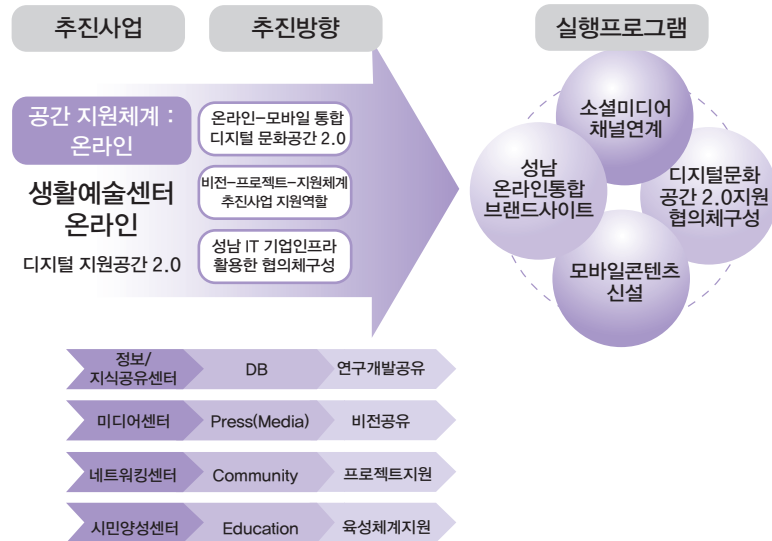


그림 5-7 온라인 공간 추진방향

(1) 온라인-모바일로 확대되는 디지털 지원공간 2.0

- 성남문화재단의 온라인 공간의 활용이 미흡했지만 온라인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비전공유에 활용하는 등 오프라인을 보완·발전시킬 수 있는 디지털의 활용도를 증진시켜야 함
- 스마트폰의 보급 등으로 최근 확대된 모바일 플랫폼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대비
- 온라인에 머물렀던 지원공간을 모바일로 확대하여 시민의 생활에 밀착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예술'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함
- 웹 2.0의 기본정신인 '개방·참여·공유'를 목표로 하여 시민이 주도하는 성남 문화정책 기조에 맞게 시민 참여형 공간을 개발
- '사용자 친화적'이고 다양한 참여기회를 증진시키는 웹2.0의 변화흐름을 적용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성남의 문화사업 비전을 실현하는 도구로 활용하여야 함
- 다양한 소셜 미디어는 네트워크 형성과 시민 참여기회 증진, 통합적 확산에 도움을 주며 시민 주도형 문화정책처럼 열린 창구를 만들 수 있음

(2) 비전-프로젝트-지원체계를 통합 지원하는 온라인 공간

- 비전 포지셔닝에 따른 '문화사랑시 성남' 브랜드를 비롯한 세부 사업 브랜드 등의 비전공유, 각종 프로젝트, 지원체계에 해당하는 육성체계, 지원공간 등을 운영지원함

- 비전 연구개발 체계는 정보지식공유센터인 데이터 베이스 기능 등으로 비전을 공유하는 체계는 온라인 홍보실에 해당하는 미디어 기능으로 구축
- 자발적 관심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사랑방 문화클럽이나 지역단위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동네 문화클럽 등은 커뮤니티 기능을 통한 '네트워킹 지원센터'로 육성체계 등은 시민양성센터의 일환인 온라인 아카데미 기능 등으로 지원될 수 있게 구축
- 세부사업 및 비전 포지셔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온라인 공간은 전문적 인력 충원 및 협의체 구성으로 실현

(3) 성남의 IT기업 인프라 활용

- 미래의 잠재적인 문화시민을 발굴하고 IT 사업단지 등으로 특화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양한 시너지 창출
- 기업을 문화정책 비전 공유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성남만의 특화된 IT 인프라를 활용하여 온라인 지원공간의 운영주체로서 역할 부여
- 선진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 등으로 정부(Government 2.0) 사례의 창출을 통해 기업 및 성남문화재단간 윈윈전략 구사

3-4) 온라인 공간 실행프로그램

(1) 디지털 지원공간 2.0 운영협의체 구성 프로그램

A. 온라인 지원공간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시민·재단) 운영협의체 구성

- 통합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온라인 지원공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재단내 전문적 운영인력 및 자발적 시민 운영 인력 선발
- 재단내 인력 충원 : 소셜미디어 및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 활용 능력 및 온라인에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추어야 함
- 자발적 시민 인력충원 : 사랑방 문화클럽이나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등의 성남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온라인 미디어 활용능력이 뛰어난 자발적 시민 운영진 선발하여 운영에 활용

B. 성남 IT기업인프라를 활용하는 운영협의체 구성

- 디지털 지원공간 운영 관련 행정가와 시민, 전문가로 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 효과적인 사업운영을 통해 선진
- 디지털 지원공간 운영협의체구성 : 재단내 운영담당자와 외부 개발 전문 그룹, 자발적 시민 운영자 그룹 등과의 운영협의체 구성
- 성남 IT인프라 활용 : 성남에 특화된 IT기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외부전문가 그룹으로 선발하여 기업차원의 문화사업 참여 유발 및 문화비전 공유
- 협의체를 통해 기업-시민-성남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동시에 시너지 창출
- '문화사랑시 성남' 사이트, 소셜네트워크, 모바일 지원공간 등 사업연결

(2) 온라인 지원공간 구축 프로그램

- 새로운 '문화사랑시, 성남' 사이트를 구축하고 기존에 운영되어진 성남의 다양한 온라인 지원공간을 웹2.0 적으로 리뉴얼 및 업그레이드하여 디지털 지원공간 2.0 마련
- '문화사랑시 성남' 통합사이트 구축
 - ↳ 문화사랑시 성남의 비전·프로젝트·지원체계를 통합하는 종합사이트 구축
 - ↳ 새로운 문화도시 비전을 공유함과 동시에 기존의 사업별 지원사이트 등을 연계하여 통합적 기능을 하며 온라인 사이트를 브랜드화
 - ↳ 소셜미디어, 모바일, 기존 프로젝트 사이트 등을 통합 연계함
 - ↳ 시민이 운영 및 공헌자로 참여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사랑방 문화클럽 업그레이드 : 기존에 활용이 적은 코너 등을 정비하고 효과적인 기능만 남기는 등 사용성을 개선하고 사용자들이 주로 쓰는 포털 서비스, 커뮤니티 서비스, 개인화서비스 등과의 쉬운 연계하며 모바일, 소셜 서비스와 연동
-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 위치기반 정보 등을 부가하고 사랑방 문화클럽, 문화통화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창구 개발

(3) 소셜미디어 채널 구축 프로그램

- 실시간성, 정보성, 모바일 친화적인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에게 정책적 편의를 제공하고 디지털 공간의 활용도를 높임
- 동영상이나 마이크로 블로그 등의 소셜미디어는 비전공유의 채널로의 기능이 우선시 되며 성남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알림 기능 등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음

A. '문화사랑시 성남' 동영상·마이크로블로그·블로그 채널 신설

- 블로그 : 문화사랑시, 성남의 정책블로그 등을 통해 산하 사이트의 정보를 통합하고 기존 온라인 뉴스레터 등의 기능을 통합
- 동영상 : 유튜브(Youtube)나 Vimeo, 다음뷰 등의 동영상 전문채널에 성남브랜드 채널을 만들어 비전공유 및 포럼 자료 등의 정보전달에 활용
- 마이크로 블로그 채널 신설
 - ↳ 트위터, 미투데이 등의 마이크로 블로그를 통해 비전공유, 연구공유, 정보전달,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증진, 해외네트워크 증진 등에 활용
 - ↳ 개별 사이트에서 업데이트 되는 프로젝트 정보, 연구지식, 네트워크 소식을 통합적으로 알리는 미디어기능
- 다양한 소셜미디어는 이벤트 등의 프로모션을 통해 폭넓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외부 네트워크 확장에 기여함

B. 위젯·온라인애플리케이션 개발하여 기존 소셜 네트워크 연계

- 사랑방 문화클럽 등이 활동하고 있는 기존의 소셜네트워킹 사이트 및 커뮤니티 사이트와 온라인 지원공간과의 연결이 용이하도록 기존의 사이트 링크 수준을 넘는 연계필요
- 각 커뮤니티에 '문화사랑시 성남'이나 '사랑방문화클럽'임을 알 수 있게 하는 타이틀 로고, '우수 사랑방 문화클럽' 훈장마크 등을 달 수 있도록 하는 배너, 위젯 등을 운영하여 통합 사이트와 연계함
- 문화사랑시 성남 통합사이트, 모바일 콘텐츠와 연계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기존에 흩어져있던 문화클럽사이트, 성남시민 문화블로그 등을 통합

(4) 모바일 지원공간 구축 프로그램

A. '문화사랑시 성남' 모바일 활용실태 조사

- 효과적인 모바일 지원공간 구축을 위해 성남 시민의 모바일 기기 및 활용 정도 파악
- 성남 문화실태 조사의 일환으로 모바일 활용 실태 및 니즈 파악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잠재 활용 인구가 확보되었을 때부터 단계적 사업 실행

B. '문화사랑시 성남' 애플리케이션(Apps) 개발

- 스마트폰 등의 보급에 따라 모바일 콘텐츠 활용 확대되고 있으며 공공애플리케이션이 생겨나는 추세로 위치기반 정보라는 특징을 성남의 문화프로젝트 등에 활용할 수 있음
- 성남시민의 문화프로젝트 이용 활성화 및 정보전달 목적을 비롯하여 외부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사랑시 성남' 브랜드 홍보
- 주요구성 콘텐츠
 - ↳ '문화사랑시 성남' : '문화사랑시 성남' 디지털 공간과의 연계 및 블로그, 동영상, 소셜네트워크 직접연결
 - ↳ 사랑방문화클럽 : 사랑방의 위치 정보, 문화클럽의 업데이트 소식, 사업안내, 문화클럽참여자 연결
 - ↳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 동네만들기 위치정보, 사업안내, '문화사랑시'
 - ↳ 문화통화 : 모바일사용권 개발, 문화통화 사용장소 안내, 사용현황 등 모바일 정보화하여 사용편의를 도모
 - ↳ 각종 사업 및 이벤트 공고 및 시민간 네트워크 확립, 모바일 참여기회 확대창구를 개발

4) 지원조직 체계 : 문화사랑 거버넌스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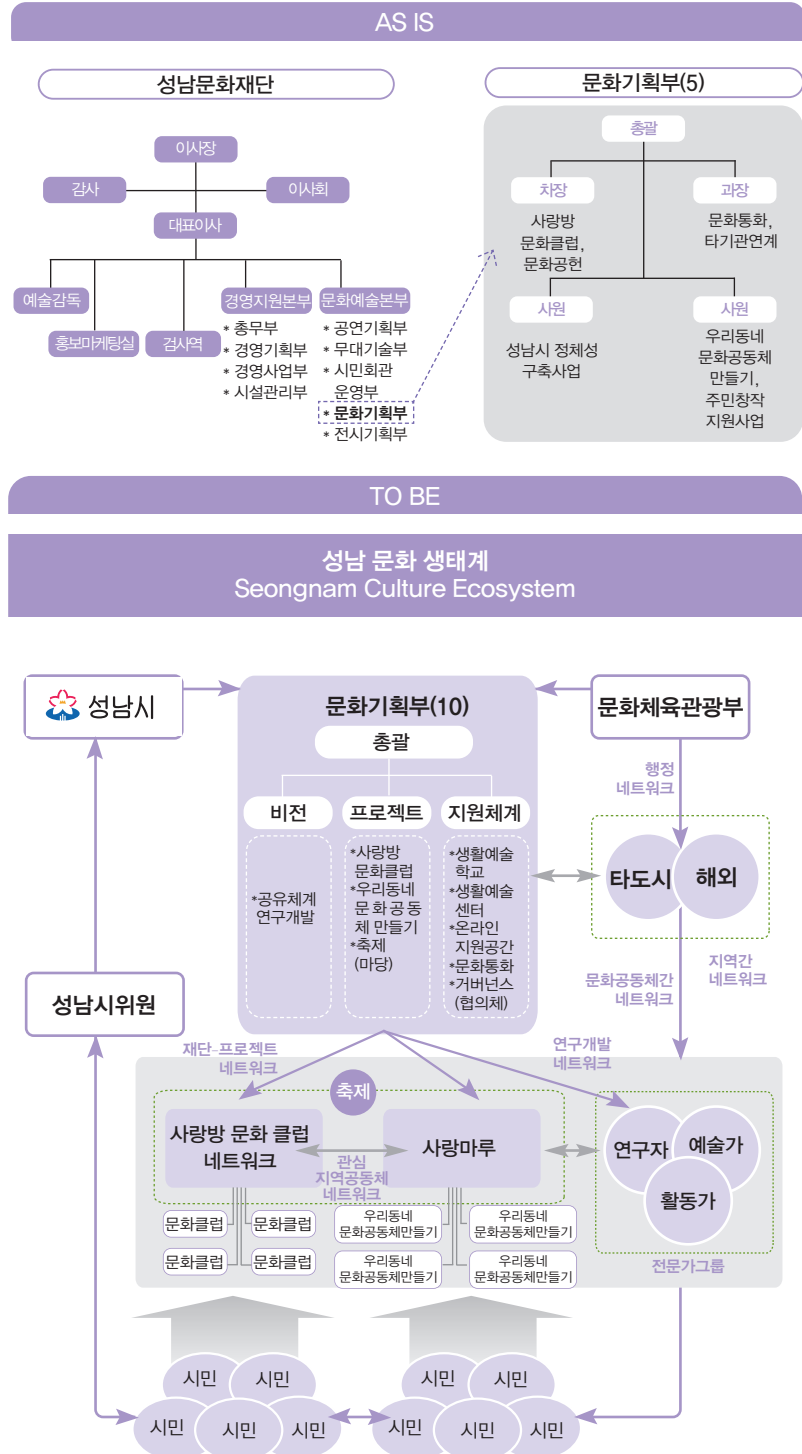


그림 5-8 문화사랑 거버넌스 사업

4-1) 추진방향

(1) 문화재단내 지원조직 강화

- 성남의 문화비전을 실행하고 새롭게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재단내 담당 인력 충원 필요
- 비전-프로젝트-지원체계의 새로운 실행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행정지원인력을 충원하여 지원조직 강화
- 시민 주체로 이루어지는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시민의 자발성을 해치지 않는 세밀한 조직 구성을 전제로 함

(2) 네트워크 구축 중점

- 기존에 산발적이고 행사 위주로 진행되었던 네트워크를 견고히 하고 프로젝트별로 흩어진 각종 네트워크를 묶는 협의체를 구성

(3) 시민참여형 거버넌스를 통한 성남 문화생태계 조성

- 시민, 행정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간의 협치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이 만드는 문화 예술 창조도시'를 만드는 문화생태계를 조성
- 사랑방 문화클럽,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등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시민 및 문화활동가들과 지역의 시민문화단체, 행정실무자 등이 연계하여 스스로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기획하는 의사수렴 체계를 마련

4-2) 실행프로그램

(1)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조직 개편 및 전문화 프로그램

- 기존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사업을 관장하는 문화기획부인력은 5명으로 개인당 2개의 사업이상을 맡는 등의 지원조직 역할이 미비함
- 새롭게 제시되는 비전-프로젝트-지원체계로 이어지는 문화비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성남문화재단내의 담당 행정지원이 세부적으로 전문화되어야 함
- 행정업무 중심에서 프로젝트 및 개별 실행프로그램 위주로 업무를 이원화 하여 행정지원 전문화
- 행정만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거버넌스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 활성화
- 문화기획부 인력 충원
 - ↳ 총 10명 : 총괄(1), 비전(1), 프로젝트(3), 지원체계(5)
 - ↳ 비전 및 프로젝트(4) : 비전(1), 프로젝트(3)
 - ↳ 지원체계(5) : 생활예술학교(1), 생활예술센터(1), 온라인지원공간(1), 문화통화(1), 거버넌스(협의체)(1)
 - ↳ 비전사업 담당자는 홍보·마케팅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비전공유를 진행하고 거버넌스 및 협의체는 대외홍보의 역할을 통해 네트워크 구축에 중점

(2) 네트워크 지원을 통한 거버넌스 시범구축 프로그램

- 시민-재단-전문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시범 협의체를 마련하고 거버넌스 구축에 필요한 계획 수립 등의 연구를 진행
- 문화기획부를 비롯한 전문위원, 시민 운영위원회 협력 체계 구축
-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네트워크간 소통 등의 활동을 통해 공동협의체를 마련하여 거버넌스화
-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실천을 위한 시범 네트워크 조직 및 운영을 통해 거버넌스 초기모형을 만듦
- 거버넌스의 구현을 위해서는 시민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어 기능하여야 하며 다양한 시민들에 의해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함
- 시민조직, 행정기관, 시민단체 간의 파트너십을 증진시키고 네트워크 및 관계를 유지시키는 기능으로 활동함

(3) '문화사랑 거버넌스' 프로그램

- 행정-전문가-시민간의 협치체계인 거버넌스를 '문화사랑 거버넌스'로 브랜드화하여 성남의 문화비전의 핵심적 주체로 기능
- 다양한 네트워크가 모인 공동협의체를 만들어 거버넌스로 설립함
- 각 협의체간 갈등해결 및 조정자 역할을 위한 위한 전문가 도입을 비롯하여 문화재단 문화기획부내 전문 담당 직원을 통한 행정지원 필수

VI 결론

Conclusion

본 문화도시 포지셔닝 전략 및 실행 프로그램 연구는 이해당사자(성남시민, 정부, 학계, 국내외 활동가 등)들과 문화정책 사업의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성남문화재단은 '시민주체의 문화예술 창조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1단계 3개년간 일관되게 정책을 수행하여 모범적인 문화정책 수립사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제는 더 나아가 문화도시 포지셔닝 전략 및 실행 프로그램 수행을 통해 시민의 자발성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문화정책 운영체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성남문화재단은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운영체제를 갖추고 그동안 비전을 공유한 국내외 도시 및 국가 간의 자생적이고 수평적인 협력체계에서 매개자 역할을 수행한다면 시민주체의 문화예술 창조도시 생태계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도시 포지셔닝의 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성남 문화정책의 차별성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2006년부터 성남문화정책의 진화과정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1단계 3개년 동안 성남 문화정책은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정책만이 지속가능성을 갖는다는 것을 파악하고 5대 문화정책을 통해서 이를 위한 기반마련을 통해서 문화예술창조도시를 위한 기초를 성공적으로 다졌다. 이제는 2단계 5개년 동안 세계적인 문화예술창조도시를 성장하기 위한 구조를 세우기 위해서 문화공동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도시의 문화정책을 이해당사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문화공동체시스템을 정립하고 이를 이해당사자들에게 포지셔닝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도시 포지셔닝 전략수립 및 실행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문화도시 포지셔닝을 위한 전략수립 결과 1단계 3개년 동안 추진했던 5대 문화정책 사업을 성남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문화비전'과 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 '문화프로젝트',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 확립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재구조화하였다. 첫 번째로 성남의 문화비전이 지향성을 '생활예술지향', '커뮤니티지향', '사회공헌지향'으로 이를 연구개발·공유하는 문화비전포지셔닝 전략과 추진사업 및 실행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2단계 5개년동안 집중할 문화프로젝트를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과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로 제안하고 이를 위한 문화프로젝트 전략과 추진사업 및 실행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2단계 추진과정에서 확대하고 체계화할 문화지원시스템을 육성체계, 제도법적 지원체계, 공간 지원체계, 지원조직 체계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전략과 추진사업 및 실행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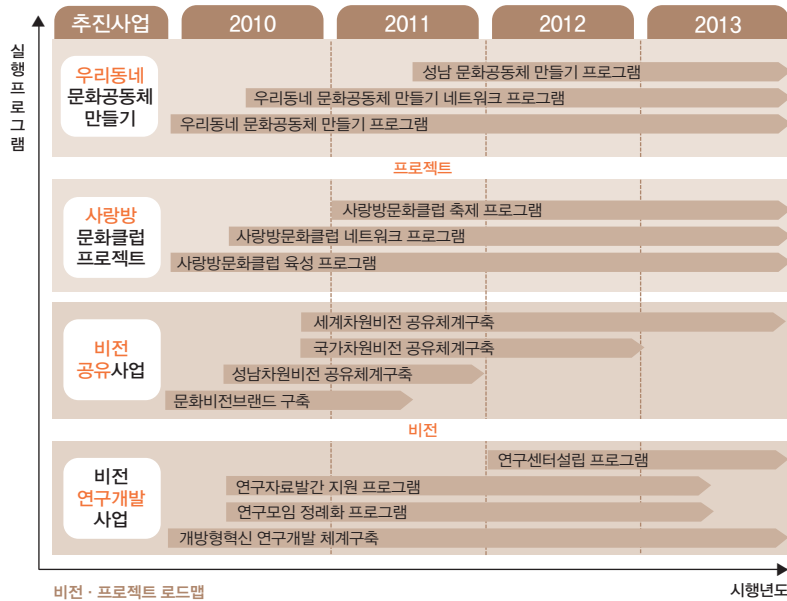


그림 6-1 비전 · 프로젝트 실행프로그램 로드맵

문화비전 포지셔닝은 성남의 문화정책이 근간이 되는 '비전'의 지향점을 연구하여 성남만의 목표와 위치를 설정하는 비전을 만들고 이에 따른 실행프로그램을 도출하였다. 성남의 비전은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도시의 의미를 담은 『문화사랑시 성남』로 설정하였다. '사랑방 문화클럽'으로 대표되는 성남의 대표적인 문화사업명의 인지도를 살리고 시민들이 생활예술을 통해 삶의 지향점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러한 문화비전은 개인과 우리, 도시 등 3가지 차원에서 지향점을 갖고 구체화 하였다. 개인의 관점에서는 '생활예술'을 지향하고 우리관점에서는 '커뮤니티'를 지향하며 도시차원에서는 '사회공헌'을 지향하고자 하였다. 개인 차원에서의 '생활예술' 지향이란 시민들이 예술의 창조가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생활에 밀착되어 예술에 직접 참여하거나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관점에서 '커뮤니티' 지향이란 생활예술이 커뮤니티를 통한 상호작용속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도시 관점의 '사회공헌' 지향은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활동 자체가 도시의 문화예술 잠재력을 키우는 것임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으로 나아가 도시의 변화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전은 문화비전 연구개발 사업과 문화비전 공유사업 등의 추진사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성남은 시민주도의 생활예술 진흥을 이끌고 새로운 예술 패러다임 등을 인정받을 정도로 1개년 3년 동안 많은 성과를 축적해왔지만 대내외적으로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고 발신기지로서의 성남을 만드

는 지속가능한 연구 등은 부족했다. 이에 다양한 연구개발을 확고히 하는 문화비전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보다 공유 및 홍보하는 체계를 만드는 문화비전 공유사업을 통해 문화비전을 포지셔닝하였다.

문화비전 연구개발 사업은 3가지 추진방향을 갖는데, 첫째 성남내부의 연구조직과 성남 외부의 전문 연구조직간의 협력을 통한 개방형 혁신(C&D) 연구 개발 체계를 마련하며 둘째 다양한 연구모임 성과인 연구결과물 자체를 브랜드화함과 동시에 셋째로 비전공유체계를 통해 연구성과를 소통하고 비전 공유의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갖고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도출된 실행프로그램은 <개방형 혁신 국내외 연구체계 구축 프로그램>, <정기적 연구모임 정례화 프로그램>, <연구자료 발간 지원 프로그램>, <연구센터 설립 지원프로그램> 이다. 문화비전 공유 사업은 시민주도형 공유체계, 교육형 교육체계, 네트워크형 공유체계라는 3가지 추진방향을 갖고 실행프로그램을 도출하였다. <문화비전 브랜드 구축 프로그램>, <성남차원 비전 공유체계 구축 프로그램>, <국가 차원 비전 공유체계 프로그램>, <세계 차원 비전 공유체계 구축 프로그램>등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홍보자료 등을 만드는 프로그램에서부터 공유대상에 따른 실행프로그램을 통해 성남을 발신기지화 하고자 하였다.

문화프로젝트 포지셔닝에서는 프로젝트 차원의 성남의 포지셔닝을 연구하였으며 기존에 5가지 주요 추진 사업중 성남을 대표하는 '사랑방 문화클럽' 과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라는 2가지 사업으로 선택 집중하고자 하였다. '관심' 커뮤니티인 사랑방 문화클럽과 '지역커뮤니티' 인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를 기반으로 두 사업이 함께 접점을 찾는 상생모델을 통해 정책적 방향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두가지 사업은 공통적으로 '방-마루-마당' 이라는 3가지 요소로 구성하여 실행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며 마당이 되는 '축제' 를 통해 두사업이 만나면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사회공헌 '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사랑방 문화클럽 사업'은 시민주도의 상향식 지원방식과 다양한 지원체계를 통해 직접지원이 아닌 간접 지원 위주로 진행하며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과 연계하여 상호협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였다. 방-마루-마당에 따라 단계별로 다른 목표를 갖고며 세부 실행내용도 조금씩 다르게 구성하였다. 이러한 추진방향에 따라 방단계의 <사랑방 문화클럽 육성프로그램>, 마루 단계의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프로그램>, 마당 단계의 <사랑방 문화클럽 축제 프로그램> 등을 도출하였다.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의 경우 동네 만들기를 넘어선 성남만들기를 추진 방향을 갖고 동네를 연결하고 지역의 문화공동체를 만드는 비전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이루기 위한 다각적 지원체계를 만들고자 하였으며 마당이 되는 축제를 통해 문화예술 창조도시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는 방단계의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프로그램>, 마루단계의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네트워크 프로그램>, 마당단계의 <성남 문화공동체 만들기 프로그램> 등의 실행프로그램을 만들어 구체화 하였다.



그림 6-2 육성체계 실행프로그램 로드맵

문화지원체계 포지셔닝에서는 비전을 지지하고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한 '지원체계'에 관한 포지셔닝을 연구하였으며 육성체계와 법·제도적 지원체계, 지원조직 체계, 공간 지원체계의 4대 지향점을 갖고 구체적 실행프로그램을 도출하였다. 육성체계는 기존에 문화향유형 교육프로그램인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나 '인문학강좌' 등에 국한된 교육프로그램에서 나아가 시민주체성을 키우기 위한 역량 교육과정을 만들고자 하였다. 법제도적 지원체계는 기존에 정책사업이었던 문화통화가 다른 문화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통화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지원체계로 만들고자 하였으며 1단계 때부터 제기되었던 시민주도형 문화정책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실행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였다. 공간지원체계에서는 지역에서 시민이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거점을 내실화하고 확대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부족했던 사랑방 등의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가까운 거리내에 커뮤니티 극장으로서의 생활예술 센터를 설립하는 오프라인 공간 확충에서부터 디지털문화공간 2.0으로 확대되는 온라인 지원공간 등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원조직 체계는 문화프로젝트 등을 행정지원하는 수행기관인 성남문화재단의 조직을 충원하고 개편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재단내 문화기획부에 비전-프로젝트-지원체계 등으로 체계화된 새로운 문화비전 포지셔닝 사업을 지원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충원하고 지원기관가 전문가, 시민간의 협치체계인 거버넌스를 마련하여 상호간의 파트너십을 확장하며 문화정책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육성체계는 '생활예술 학교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생활예술가, 생활예술 기획자, 생활 예술교육자 군 등으로 교육 대상자를 세분화 하여 진행하며 기존의 일방향으로 진행된 아카데미식 교육이 아닌 실행과 현장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학습자들이 직접 커리큘럼을 제안하고 이를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운영체제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실행프로그램으로는 맞춤형 커리큘럼과 교육방법을 개발하는 <교육대상자 역량분석 및 커리큘럼 개발 연구프로그램>, 학습자 대상에 따라 시범운영을 하는 <다양한 교육 운영 방식의 시범운영 프로그램>과 <문화프로젝트 내 학습조직 운영 및 시범 커리큘럼 운영 프로그램>이 있으며 아카데미와는 차별화되는 교육과정을 생활예술 학교로 만드는 <생활예술 학교 설립 및 운영 프로그램>이 있다. 법·제도적 지원체계는 '생활예술지원법·제도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조례제정을 통한 문화정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 참여의 조례제정을 만들어 내고자 하였으며 문화통화를 지원체제로 하여 제도적 지원체계를 만들고자 하였다. 시민의 창작 활동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하는 조례를 '생활예술지원법'으로 만들어 제정하는 <생활예술 지원법 조례 제정 시안 및 준비 프로그램>, 문화통화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체계를 만들어내는 <문화통화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프로그램>, 지속적으로 문화통화 시스템을 안착시키기 위한 <문화통화 활성화 전략 연구 프로그램> 등을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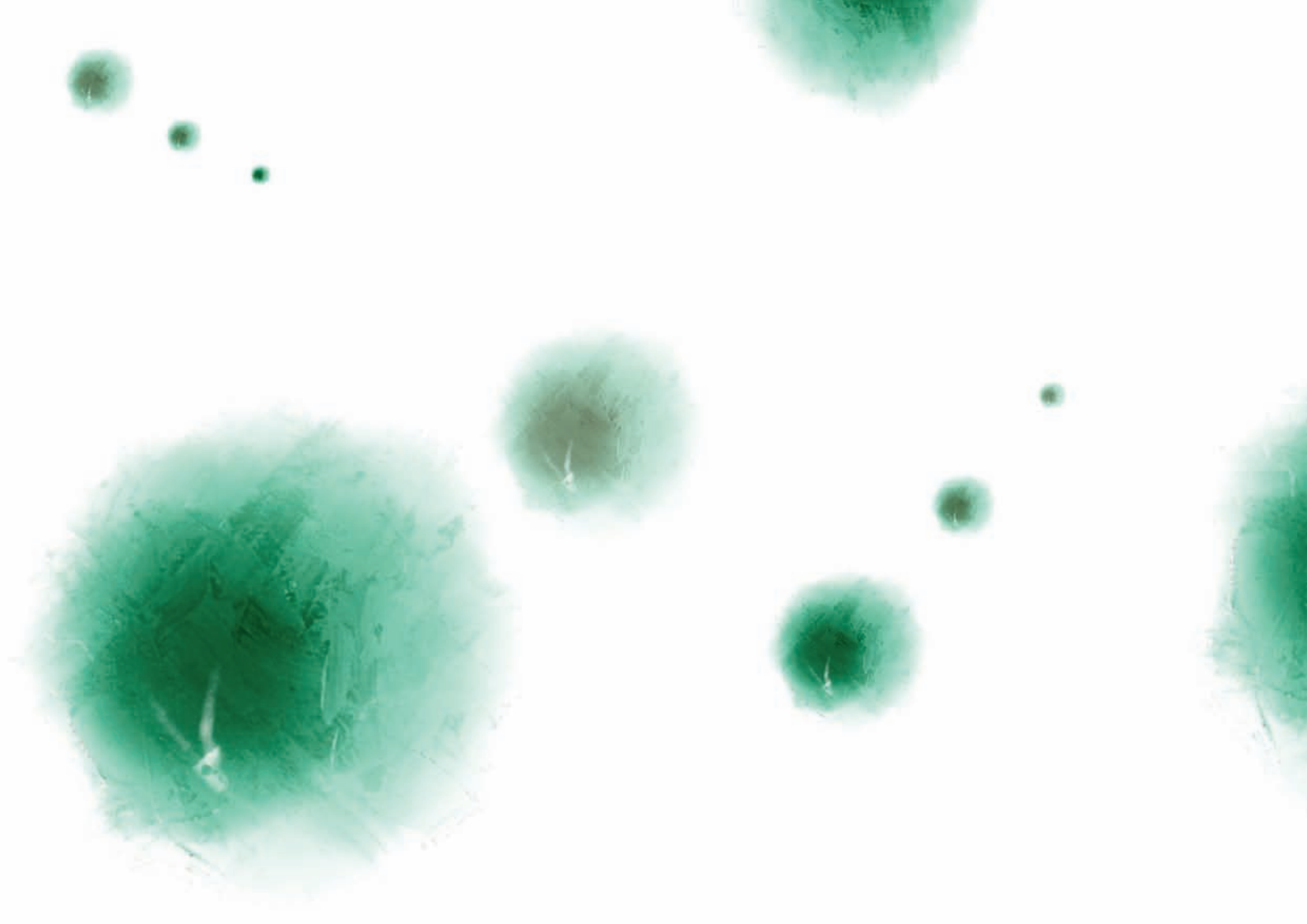
지원공간 체계는 '생활예술센터 사업'으로 만들어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으로 나누어 세부 실행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오프라인 공간은 일상생활 공간을 문화공간화하고 접근성을 기반으로 하는 공간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향성을 갖고 문화공간 확충을 하고자 하였으며 새로운 문화공간은 프로젝트, 문화통화, 지원 조직 등과 다각적으로 연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공간 창출 프로그램> <생활예술센터 운영연구 프로그램> <생활예술센터 설립 프로그램> 등의 실행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기존에 미흡했던 온라인 공간 활용을 증진시키는 온라인 공간 지원체계는 디지털 변화를 반영하여 온라인을 넘어 모바일로 확대되는 디지털 지원공간 2.0을 추구하고자 하였으며 비전-프로젝트-지원체계를 모두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으로 확대하고자 하였고 성남의 풍부한 기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과의 연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이에 따른 실행프로그램은 <디지털 지원공간 2.0 운영협의체 구성 프로그램> <온라인 지원공간 구축 프로그램> <소셜 미디어 채널 구축 프로그램> <모바일 지원공간 구축 프로그램>이 도출되었다. 지원조직 체계는 문화사랑 거버넌스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는 문화재단내 지원조직을 강화하고자 했으며 산발적이었던 네트워크 구축에 중점을 두어 시민, 행정기관, 시민단체, 전문가간의 협치체계인 거버넌스를 만들어 성남만의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조직 개편 및 전문화 프로그램>, <네트워크 지원을 통한 거버넌스 시범 구축 프로그램>, <문화사랑 거버넌스> 등의 실행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성남문화재단은 문화정책 계획 수립과 구현과정을 통해서 '시민주체의 문화 예술 창조도시'라는 문화비전을 일관되고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문화정책생태계로부터 긍정적 피드백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성남시 문화역량을 더욱 성장시키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인 사업 운영체제로 확립해야 한다. 그것은 한국사회가 성남의 시민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공동체적 예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이 창조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시대적 환경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예술 창조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다. 스스로 예술을 창조하는 체험을 통해서 시민 자신의 창조적 에너지를 증진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산업화 시대의 한국 사람들은 획일화된 라이프스타일을 갖고 있었고 창조적 에너지를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정 정도의 경제적인 충족을 경험하고 난 이후 한국인들을 삶의 질에 의문을 갖게 되었다. 여가활동을 통해서 결핍된 것을 채우고 싶어 하고 무엇보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상 내가 구경꾼이기만 한 예술은 더 이상 자신의 삶에 의미를 주기는 어려워졌다. 또한 창의성이 요구되는 시대변화에 맞추어 숨겨져 있던 자신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노력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늘어난 인생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싶은 욕구도 커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자신이 직접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생활 예술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사회에 창조적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면서 커뮤니티가 사회전반에서 활성화되었고 아마추어 예술은 창조적 계층과 만나면서 더욱더 촉진될 전망이다. 이런 변화를 인식하고 생활 예술을 지원하고 있는 성남문화재단과 같은 문화정책 노력들은 이제 한국사회전반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또한 아마추어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기존 전문 예술창조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정책과는 차별화되어 생활예술 창조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문화예술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될 것이다.

우리는 집단지성의 시대를 맞이하여 보통 사람들의 협업이 한 뛰어난 천재의 개인작업보다 더 위대할 수 있음을 경험하고 있다. 사회가 복잡계를 닮아갈수록 소수의 리더가 통제와 명령을 통해서 조직을 운영하기 보다는 조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스스로 연결하면서 자발적으로 행동한다. 아무도 계획하지 않고 지휘하지 않지만 스스로 진화하고 조직화되는 새로운 조직 체계, 그것이 자발적 커뮤니티이고 우리 사회의 새로운 희망은 이러한 자발적 시민의 역량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는 생태계를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사업이 새로운 문화정책 환경변화에 적합한 협력망과 통합운영체계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 강인애. 1995. 구성주의 원리 : 조교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공학연구. 11(1).
- 김미정, 유영만. 2003. 액션러닝과 조직변화. 교육과학사.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2008. 문화예술 기획경영 아카데미 커리큘럼 및 운영방안 개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 박은실. 2009. 창의적 공동체의 특성에서 살펴 본 아마추어 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방안. 문화의달 기념 학술회의-시민이 창조하는 문화의 세기 자료집. 인천문화재단.
- 성남문화재단. 2006.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 실태 및 욕구조사.
- _____. 2006. 「문화도시, 성남」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문화도시 성남 창조를 위한 시민토론회 자료집.
- _____. 2006. 예술, 태평동에서 노닐다-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워크숍 자료집.
- _____. 2006. 성남문화통화 도입을 위한 일본 지역통화 연수 자료집.
- _____. 2006. 사랑방문화클럽 발전방안 연구.
- _____. 2006.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만들기 기본계획 연구.
- _____. 2007. 성남문화재단에서 활용가능한 문화통화제 모델 제안 및 실행전략 연구
- _____. 2008. 성남문화재단 5대정책 연계발전 방안 연구 "창조시민 창조공간 창조도시".
- _____. 2009. 성남시민 문화참여활동 실태조사.
- _____. 2009. 성남문화재단 2단계 5개년 "창조시민 · 창조공간 · 창조도시".
- _____. 2009. 세계문화클럽포럼(WCCF)자료집.
- _____. 2009. 2009 문화정책 대화모임 자료집 - 우리 시민들의 문화예술 창조성을 어떻게 꽃 피울 것인가?.
- _____. 2009. 문화통화 지역사회 연계 발전방안.
- 심보선. 2008. 새로운 예술과 문화공동체. 2008 문화정책 대화모임자료집. 성남문화재단
- 양효석. 2009. '생활 속의 예술'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 현황과 과제. 문화의달 기념 학술회의-시민이 창조하는 문화의 세기 자료집. 인천문화재단.
- 전수환. 2008. 실행공동체를 통한 자발적 예술의 육성-성남문화재단 사례. 예술경영연구. 제13집. 예술경영학회.
- 전수환, 박승현. 2008. 시민주도의 창조도시 만들기-수도권 중소도시로서의 성남사례. 한국문화경제학회 2008 추계학술대회 "문화예술과 도시발전" 자료집. 한국문화경제학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문화클럽조성 및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공동체 활동 관련 사례분석 및 지원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P. Bourdieu. 1984.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Massachusetts, Havard University Press.
- P. Bourdieu. 1984. Out Line of A Theory of Prac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bert , Putnam. 1996.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A Touchstone Book.
- 경기문화재단 <http://www.ggcf.or.kr>
- 서울문화재단 <http://www.sfac.or.kr>
- 인천문화재단 <http://www.ifac.or.kr>



문화도시 포지셔닝 전략수립 및 실행 프로그램 개발

발 행 인 | 이대엽 · 이종덕

편 집 인 | 노재천

기 획 총 괄 | 박승현

기 획 진 행 | 오희영

발 행 처 | 성남문화재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757번지 성남아트센터

www.sncf.or.kr / www.snart.or.kr

디자인/인쇄 | 맥스커뮤니케이션

발 행 일 | 2010.1

© 성남문화재단

